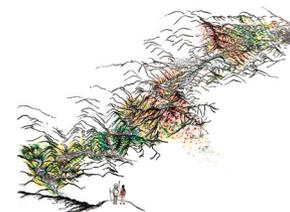




올림픽
아리
바우길

비매품/우료
03690

9 788978 209588
ISBN 978-89-7820-958-8



표지그림

올림픽 아리바우길 전경. 하늘에서 내려다본 풍경이다. 왼쪽 아래가 정선, 오른쪽 위가 강릉이다. 9개 구간을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했다. 가운데 눈을 덮고 누운 산이 안반데기. 정선에서 안반데기까지, 강릉에서 안반데기까지 길 따라 색이 달라진다. 봄·여름·가을·겨울을 표현했다.

올림픽 아리바우길 찾아가는 길



CONTENTS

- 1코스 정선 아리랑시장~나전역
- 2코스 나전역~구절리역
- 3코스 구절리역~배나드리마을
- 4코스 배나드리마을~안반데기
- 5코스 안반데기~대관령휴게소
- 6코스 대관령 휴게소~보현사 버스종점
- 7코스 보현사 버스종점~명주군왕릉
- 8코스 명주군왕릉~송양초등학교
- 9코스 송양초등학교~강문 해변



-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 | | |
|--------------------|--------------------|
| 평창 마운틴 클러스터 | 강릉 코스탈 클러스터 |
| ①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 | ⑧ 관동 하키 센터 |
| ②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센터 | ⑨ 강릉 컬링 센터 |
| ③ 알펜시아 스키점프 센터 | ⑩ 강릉 하키 센터 |
| ④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 | ⑪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
| ⑤ 휘닉스 스노 경기장 | ⑫ 강릉 아이스아레나 |
| ⑥ 정선 알파인 경기장 | |
| ⑦ 용평 알파인 경기장 | |

- | | |
|-----------|---------------|
| 알파인 스키 | 루지 |
| 바이애슬론 | 노르딕 복합 |
| 봅슬레이 |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
| 크로스컨트리 스키 | 스켈레톤 |
| 컬링 | 스키점프 |
| 피겨스케이팅 | 스노보드 |
| 프리스타일 스키 | 스피드 스케이팅 |
| 아이스하키 | |

교통정보

1코스 구간(정선 아리랑시장~나전역)은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로 이동할 수 있다. 시내버스는 정선아리랑시장 삼익주유소앞에서 승차해 북평버스터미널에서 내리면 된다. 하루 16회 운행.

2코스 구간을 버스로 이동하려면 북평터미널(나전역)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출발해 여량터미널에서 마을버스로 갈아타야 한다. 북평터미널은 하루 9회 운행, 여량터미널은 하루 6회 운행.

3코스가 끝나는 지점인 배나드리마을에서 강릉시내까지는 하루 3회 시내버스(507번)를 이용할 수 있다. 강릉시내(공단) 6시, 12시, 17시. 배나드리마을 8시10분, 13시45분, 18시50분.

4코스가 끝나는 지점인 안반데기입구(감자원종장)에서 강릉시내까지 하루 3회 시내버스(507번)를 이용할 수 있다. 강릉시내(공단) 6시, 12시, 17시. 감자원종장 8시20분, 13시50분, 19시.

5코스 종점 주변 대관령박물관까지 강릉 시내버스(503번)를 이용할 수 있다. 평일기준 하루 17회 운행한다. 주말에는 강릉(안목)에서 대관령휴게소까지 503-1번 버스를 1회 운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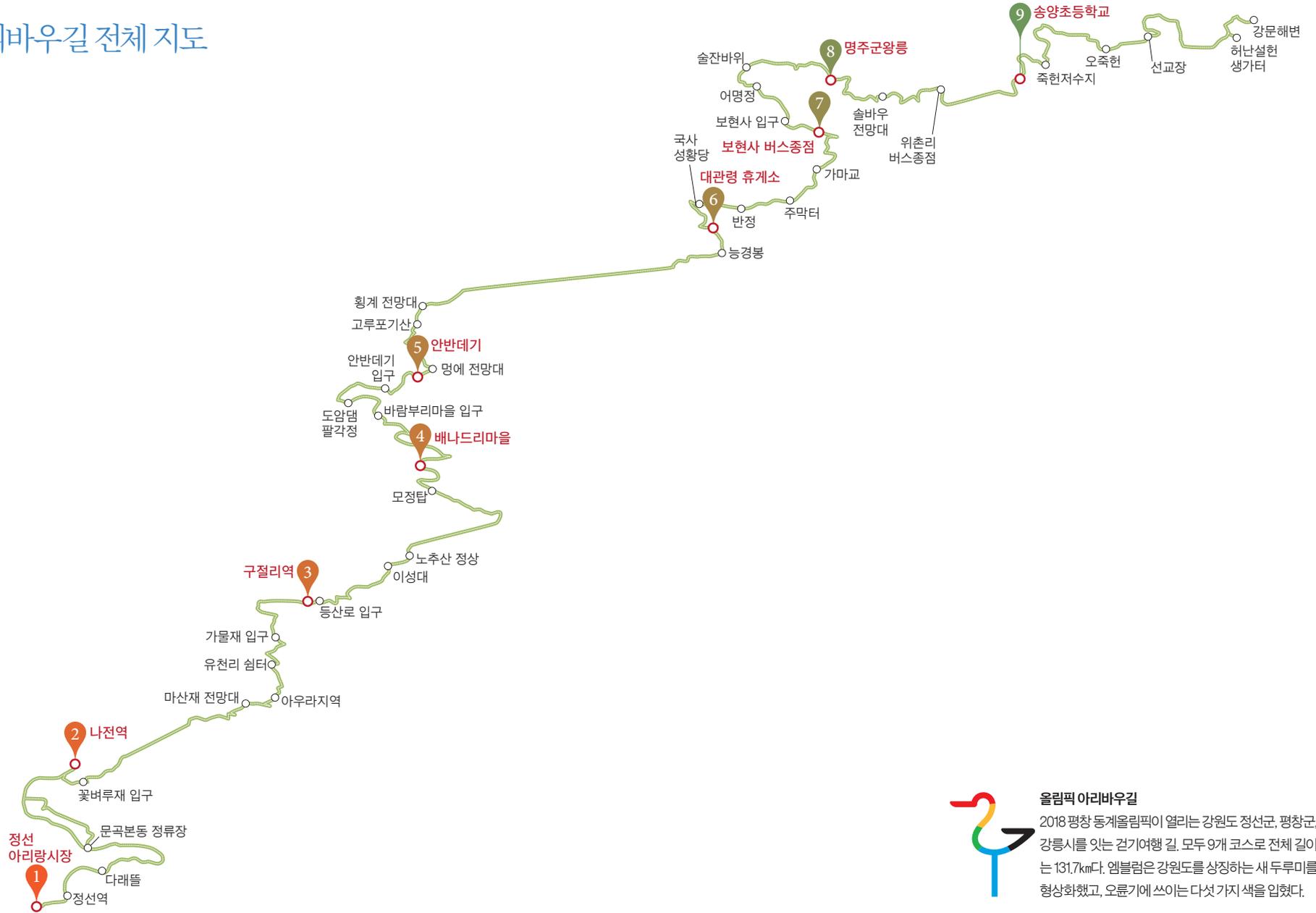
6코스 종점인 보현사 버스종점까지 강릉 시내버스(502번)를 이용할 수 있다. 평일기준 9회 운행한다. 평창에선 횡계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강릉방면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7코스 명주군왕릉에서 강릉(안목)까지 시내버스(502번)를 이용할 수 있다. 강릉(안목) 첫차 5시55분, 막차 20시45분. 명주군왕릉(삼왕릉) 첫차 6시45분, 막차 22시35분.

8코스 종점인 위촌리부터 강릉시내까지 시내버스(512번, 512-1번, 512-2번)를 이용할 수 있다. 512번 첫차 8시, 막차 21시30분. 512-1번 첫차 8시40분, 막차 17시45분. 512-2번 첫차 6시30분, 막차 19시50분.

9코스 강문해변까지 시내버스(230번, 230-1번)를 이용할 수 있다. 평일 18회 운행한다. 강릉시내(터미널) 첫차 6시30분, 막차 20시20분. 강문해변 첫차 7시20분, 막차 21시10분.

올림픽 아리바우길 전체 지도



올림픽아리바우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정선군, 평창군, 강릉시를 잇는 걷기여행길. 모두 9개 코스로 전체 길이는 131.7km다. 엠블럼은 강원도를 상징하는 새 두루미를 형상화했고, 오른쪽에 쓰이는 다섯 가지 색을 입혔다.



1코스

정선 아리랑시장~나전역

1코스

길이 | 17.1km 난이도 | 중 시간 | 6시간30분~7시간

정선 아리랑시장 - 1.3km → 정선역 - 4.8km → 다래들 - 2.9km → 문곡본동 정류장 - 8.2km → 나전역

길은 시장에서 시작해야 제격이다
 시장 골목에서 메밀전병 하나로 속을 채우고
 행장을 꾸려야 비로소 길을 나서는 것이다
 조양강 물길 따라 정선선 철길 따라
 길은 하염없이 이어진다



정선 아리랑시장은 웃음으로 늘 활기차다.



정선 아리랑시장

(정선오일장)

주소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359
문의 정선군관광안내소 1544-9053
정선아리랑시장상인회 033-563-6200



정선아리랑시장에는 더덕·고사리·머루 등 산나물과 열매로 가득하다.

정선아리랑시장의 원래 이름은 정선오일장이다. 2일과 7일로 끝나는 날에 열리는 닛새장이었지만 사람이 몰려든 뒤로 매일 장이 선다. 오일장의 역사는 조선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지만 지금의 장터는 1966년에 꼴을 갖췄다.

정선아리랑시장은 정선 최고의 관광명소이자 전국 문화관광 시장의 모범이다. 정선군 인구가 3만8000명을 헤아리는데, 시장의 연 방문객은 70만 명에 육박한다. 시장 점포 120개가 빈 곳 하나 없이 꽉 차 있다. 시장에 대단한 물건이 나오는 것은 아니

다. 곤드레·곰취·황기·더덕 등 산나물과 약초, 메밀전병·울챙이묵(옥수수묵)·콧등치기국수 등 강원도 내륙 산간지방의 향토음식이 시장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선아리랑시장이 여느 전통시장과 다른 것은 사람이다. 노점 좌판에 '신도불이증'이라고 적힌 이름표를 단 상인들이 죽았어 있다. 이름표는 일종의 증명서다. 정선에서 나는 물건을 파는 정선 상인만 잘수 있다. 현재는 120명만 이름표를 달고 있다. 현재는 120명만 이름표를 달고 있다. 문화도, 장사도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치를 서울에서 기자로 네 시간 거리의 시골 장터가 증명한다. 정선아리랑시장은 상설시장이지



메밀전병

메밀은 강원도 내륙 산간지방의 주요 곡물이다. 메밀로 묵을 빻기도 했고 국수를 만들기도 했다. 메밀로 뽑은 국수가 콧등치기국수다. 메밀 특유의 탄력이 면에 배어 있어 후루룩 들이켜면 콧등을 치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밀 음식으로 가장 흔한 것은 전병이다. 무쇠솥 뚜껑에 부친 메밀부침개 안에 김치 같은 열큰 한 양념 소를 넣는다. 부침개의 기름기가 매운맛을 잡아준다.



수리취떡

수리취가 산나물이니 수리취떡은 수리취라는 나물을 넣고 찐 떡이다. 여느 산나물처럼 수리취도 흔한 산나물이지만 수리취떡은 별식이나 특식으로 다른 대접을 받는다. 단옷날 나눠 먹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강릉단오제는 강릉에서만 지켜온 전통이 아니다. 강릉과 맞닿은 정선에서도 세시풍속으로 단오를 쇠다. 그 증거가 수리취떡이다. 수리취떡은 사흘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고 한다.



곤드레나물밥

곤드레의 원래 이름은 '고려 영경귀'다. 잎사귀가 날찍하고 뿌리가 긴 들풀이다. 봄날 산에서 곤드레 앞을 따다 밥을 지을 때 넣고 찌면 곤드레나물밥이 된다. 강원도 내륙 산간지방에서 부족한 쌀을 메우기 위해 고안한 음식이 지금은 별미대우를 받는다. 양념간장에 비벼 먹는데 곤드레 특유의 향긋한 향이 회동집(메밀전병 5000원) 등이 상인들이 추천하는 맛집이다.



울챙이국수

'옥수수묵' 또는 '울창묵'이라고도 한다. 이름은 국수지만 묵에 더가깝다. 옥수수를 삶은 뒤 맷돌로 갈아서 만든 국수여서 길이가 짧다. 이 짧은 길이에서 울챙이가 비롯됐다. 울챙이국수·콧등치기국수 모두 강원도 내륙 산간지방의 지리적 환경이 낳은 향토 음식이다. 밀가루가 귀한 탓에 어쩔 수 없이 옥수수와 메밀로 국수를 만들어 먹었다. 울챙이국수는 시원한 맛에 먹는다.

만 오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더욱 성황을 이룬다. 코레일이 오일장이 열리는 날과 주말에 관광열차를 운행하기 때문이다. 정선오일장 열차는 코레일의 패키지 상품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스테디셀러다.

관광열차가 들어오는 날 장터는 흥겨운 오일장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정선아리랑 공연은 물론이고 품바 타령까지 온종일 전통 문화공연이 열린다. 정선역과 정선아리랑시장은 1.3km 떨어져 있다.

정선황기막국수(곤드레밥 6000원), 명선집(콧등치기국수 5000원), 회동집(메밀전병 5000원) 등이 상인들이 추천하는 맛집이다.

정선 기차여행

정선아리랑 열차

운행 상시 운행(월·화요일 제외, 단 정날·공휴일은 운행)
요금 2만7600원(청량리역~아우라지역 편도 기준)
문의 코레일관광개발 1544-7788



눈 덮인 정선의 구석구석을 힘차게 달리는 정선선 열차

시장에서 나온 길은 큰 길을 건너 정선역으로 이어진다. 정선역에는 하루 네 번 기차가 멈춰 선다. 청량리역과 제천역에서 출발한 무궁화호 열차가 하루 한 번씩 아우라지역을 갔다오는 길에 들러 모두 네 번이다. 정선선은 원래 예미역(지금은 태백선)을 출발해 증산역(지금은 민둥산역)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튼 뒤 정선역~나전역~아우라지역을 지나 구절리역까지 이어지는 45.9km 구간을 이룬다. 정선이 석탄으로 흥청거리던 시절 정선선은 정선의 젖줄이자 동맥이었다.

지금의 정선선은 기차여행 마니아에게 각별한 구간이다. 기차여행 특유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어서다. 이를테면 정선오일장을 테마로 삼은 기차여행 상품은 국내 패키지 여행상품의 스테디셀러다. 요즘에는 '정선아리랑 열차(A-트레인)'라는 이름의 관광열차가 하루에 한 차례 운행된다. '정선'이라는 지역 이름을 사용하는 국내 최초의 관광열차다. 2015년 1월 운행을 시작했다.

서울 청량리역을 출발해 원주·제천·영월 등을 거친 뒤 민둥산역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정선 읍내

로 향하는 정선아리랑 열차는 별어곡역·선평역·정선역·나전역·아우라지역에서 차례로 멈춰 선다. 특히 선평역과 나전역에서는 열차가 약 5분 정차한다. 승객이 열차에서 내려 간이역을 둘러볼 수 있는 짬을 주기 위해서다. 아우라지역에서 나오는 4858열차의 경우 선평역에서 10분을 정차한다. 승객을 위해 기차역에서 반짝 장터가 열린다.

정선역에서 나온 길은 조양강 물길과 정선선 철길을 따라 무연히 북으로 향한다. 그 길이 끝나는 지점에 나전역이 있다. 그러니까 올림픽 아리바우길 1코스는 정선역전의 시장과 나전역을 잇는 길인 셈이다. 나전역에 들어섰더니 대합실 나무의자에서 아주머니 두어 명이 보따리를 베고 누워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포근한 풍경을 잊지 못한다.

1코스 종점 나전역과 2코스 중간의 아우라지역은 간이역 여행의 성지와 같은 곳이다. 무인 기차역인 나전역은 TV CF나 영화·드라마의 단골 촬영지다. 역에 들어서니 녹색 통표(쇠로 된 운전허가증)가 기념품처

럼 걸려 있었다. 나전역이라는 이름은 1990년 문을 닫은 나전광업소에서 비롯됐다. 나전역에도 탄광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다.

정선아리랑열차가 아니어도 정선선 열차는 꼭 타볼 만하다. 이왕이면 함박눈 내리는 겨울날 올라타시라고 권한다. 빨간 열차가 하얀 세상을 거침없이 달리는 장면은 차라리 가슴 벅차다.



나전역 승강장. 시간이 멈추기라도 한 듯, 한가롭고 평화로운 풍경이다. 2015년 코레일이 옛날 모습 그대로 복원했다.



나전역 앞 광장의 올림픽 아리바우길 종합안내판



다래뜰 전경. 마을 앞으로 조양강이 굽이쳐 흐르고 강 너머에는 땃대가 벉쳐럼 서 있다.

정선역에서 나온 길은 조양강을 따라 이어진다. 올림픽 아리바우길을 조성하면서 전망대를 설치했다. 전망대에 서니 강 너머 다래뜰이 환하다. 다래뜰은 한반도 지형 마을이라고도 불린다. 물길에 급하게 돌아가는 모퉁이 지형에서 한반도를 연상해 붙인 이름이다. 길이다래뜰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반도처럼 보이는지는 알기 힘들다. 다래뜰 맞은편 상정바위산(1006m)에서 내려다봐야 반도 모양이 드러난다. 상정바위산에 오르는 길이 문곡본동 정류장 근처에서 시작된다.

1코스는 문곡본동 정류장을 지나면 두 갈래로 갈린다. 다리를 건너 뒤 조양강을 따라 걷는 강변로 코스(3.7km)가 있고, 마을 뒷산을 오르는 새리골 등산로 코스(3.2km)가 있다. 길은 강변 코스가 길지만, 시간은 등산로 코스가 30분쯤 더 걸린다. 1시간 30분은 각 오해야 한다. 대신 숲속에서 내려다보는 남평들녘의 그윽한 풍광은 땀 흘린 보상으로 모자람이 없다.

땃대

절벽을 뜻하는 정선 사투리. '정선 하늘은 세 치'라는 말이 전할 만큼 정선은 첩첩산중에 들어박혀 있다. 그래서 정선 사람은 벉쳐럼 에운 산을 올려다보며 살았다. 정선 사람의 앞을 가로막은 벉같은 산이 땃대다. 땃대라는 단어에는 낮은 데에서 사는 정선 사람의 딱하고 먹먹한 심정이 얹혀 있다.



새리골 등산로 코스의 숲숲. 강릉의 숲숲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제법 운치가 있다.



등산로 코스를 내려오면 길은 마을을 지나고 강을 건너 나전역으로 이어진다.

1코스 여행정보

먹거리



식당명 (음식)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미락정 갈비 (갈비)	정선읍 녹송길 18	(033-563-4477)
동광식당 (정선황기족발-컷등치기)	정선읍 녹송길 27	(033-563-3100)
한치식당 (황기족발-컷등치기)	정선읍 녹송길 30	(033-562-1068)
푸른수산 (활어회)	정선읍 녹송로 80-1	(033-562-2590)
신마포갈매기 (돼지고기구이)	정선읍 녹송로 75	(033-563-5292)
의정부동오부대찌개 (찌개-전골)	정선읍 봉양5길 40-1	(033-562-8824)
현재숯불갈비 (돼지고기구이)	정선읍 봉양5길 40-5	(033-562-4944)
해마루 (초밥-회)	정선읍 봉양6길 29-2	(033-563-6868)
평화반점 (중식)	정선읍 봉양6길 38	(033-563-0688)
국일관 (한식)	정선읍 봉양7길 17	(033-562-3076)
맛고을가든 (영양돌솥밥-곤드레정식)	정선읍 비봉로 1	(033-562-1114)
서울식당 (찜닭)	정선읍 비봉로 17	(033-562-5430)
사랑채 (한우 생등심-곤드레밥)	정선읍 비봉로 56	(033-562-7179)
아리밥상 (한식)	정선읍 비봉로 58	(033-562-5945)
강마을 (한식)	정선읍 새대길 2	(033-562-2226)
황토방병천순대 (순대-순대국)	정선읍 애산로 53	(033-563-5437)
성마령 (한식)	정선읍 용담길 95	(033-562-0055)
사리골식당 (도토리묵-곤드레나물밥)	정선읍 정선로 1312	(033-562-4554)
동박골식당 (돌솥곤드레밥정식-곤드레밥)	정선읍 정선로 1314	(033-563-2211)
종가집 (물막국수-비빔막국수)	정선읍 정선로 1332	(033-562-1531)
태동관 (중식)	정선읍 정선로 1347	(033-562-1607)

숙소

숙소명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달뜨락마을	정선읍 가내길 16	(010-6789-5717)
아일랜드정선	정선읍 가리왕산로 570-25	(033-562-7389)
가리왕산장	정선읍 가리왕산로 570-5	(033-562-5080)
덕오리체험마을	정선읍 백오담길 27	(010-4445-6014)
로하스(둘다리)마을	정선읍 둘다리길 11	(010-4654-9495)
상유재	정선읍 봉양3길 22-8	(033-562-1162)
크리스탈모텔	정선읍 봉양5길 16-5	(033-563-7744)
하얏트파크모텔	정선읍 서동로 1221	(033-562-5666)
갤러리모텔	정선읍 여천길 22	(033-563-7555)
그림장여관	정선읍 정선로 1242	(033-563-0522)
동호모텔	정선읍 정선로 1360	(033-562-9000)
가리왕산이야기	정선읍 청량길 32	(033-562-1665)
가리왕산	정선읍 청량길 5	(010-2525-0031)

교통

버스 정선 시외버스터미널 033-563-9265 정선 시내버스터미널 033-563-1094
 1코스 구간(정선 아리랑시장-나전역)은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로 이동할 수 있다.
 시내버스는 정선아리랑시장 삼익주유소 앞에서 승차해 북평버스터미널에서 내리면 된다.
 하루 16회 운행하고, 첫차는 6시10분(34번 임계) 막차는 17시35분(32번 나전)이다.

택시 아리리콜택시 033-592-5000 정선아리랑개인콜 033-592-0000

열차 나전역 1544-7788(코레일) 아리랑열차 운행 요일: 수·목·금·토·일요일 (※월·화요일이 2일과 7일인 경우 운행)



2코스

나전역~구절리역

2코스

길이 | 20.5km 난이도 | 중 시간 | 7시간

나전역 - 2km → 꽃벼루재 옛길 입구 - 7.1km → 마산재 전망대 - 2km → 아우라지역 - 2.5km →
유천리 쉼터 - 3.5km → 가물재 - 3.4km → 구절리역

두메산골 정선의 길은 물길과 철길이다
조양강 물길을 따라 소나무 실은 뗏목이 내려갔고
정선선 철길을 따라 부침 심했던 탄광의 세월이 흘러갔다
물길의 내력과 철길의 세월을 되짚다 보면
올림픽 아리바우길의 정선 구간인 1코스와 2코스가 끝난다



정선 레일바이크



꽃벼루재



꽃벼루재 옛길은 깊고 그윽한 숲길이다. 전망대에서 북평들을 내려다봤다.



꽃벼루재에서 내려다본 조양강 물굽이

2코스는 올림픽 아리바우길 9개 코스 중에서 가장 길다. 유일하게 20km가 넘는다. 그래도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매길 수 있겠다. 대체로 평탄해 걷기에는 큰 부담이 없다.

2코스도 1코스처럼 조양강 물길을 거슬러 오른다. 강과 길은 만났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하며 북쪽으로 하염없이 나아간다. 나전역에서 다시 북평교를 건넌 길이 산으로 들어간다. 여기에서 아우라지 어

귀까지 이어지는 꽃벼루재 옛길이 시작한다. 7.1km 길이의 완만하고 무난한 고갯길이다.

고갯길은 조양강을 따라 신작로(42번 국도)가 나기 전까지 정선읍내와 아우라지를 잇는 유일한 통로였다. 고개를 넘는 산길이지만 지금도 널찍한 까닭이다. 군데군데 보이는 시멘트 포장에 옛날에 이 후미진 산길에 버스가 달렸다는 이력을 증명한다. 지금은 소나무가 우거져 그윽한 운치의 오솔길을 연출한다. 인적 뜸한 옛길

에 올림픽 아리바우길이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트레일은 길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끊긴 길을 다시 잇는 것이다.

길 왼쪽 아래는 가파른 절벽이다. 절벽 아래로 조양강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인다. 1코스에서 말했듯이 정선의 일상은 비랑 아래의 삶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길은 비랑 위에 있다. 벼루(벼루)가 비랑의 정선 사투리다. 봄이면 진달래꽃 만발하는 비랑 고갯길이어서 꽃벼루재다(지루한 비랑길이 곧 끝난다

고 해서 '곧벼루재'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뽕대'와 '베루'는 같아보이지만 전혀 다른 말이다.

전망대에 올라서니 조양강 너머 북평들판이 한눈에 들어온다. 평화로운 전경이다. 고갯길에 든 계절이 마침 가을이어서 누렇게 익은 들녘을 조우할 수 있었다. 마을 뒤편으로 거대한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늘어서 있다. 그 봉우리 가운데 평창올림픽 스키 활강 종목이 열리는 가리왕산 중봉(1433m)도 있다. 꽃벼루재의 맨

마지막 전망대가 마산재(505m)다. 조선시대 파발마를 기르던 곳이라고 한다.

마산재에서는 여량들판이 훤히 내다보인다. 첩첩산중 정선에서 그나마 너른 들판을 두른 마을이라 식량사정이 나았다고 한다. 그래서 여량(餘糧), 곡식이 남는 땅이다. 참, 배우 원빈의 고향이 여량이다. 농사 짓는 부모의 집에 일본에서도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한다. 들판 너머로 물줄기 세 개가 꿈틀거린다. 아우라지에 들어섰다.

아우라지



송천(왼쪽)과 골지천(위)이 아우라지에서 합쳐져 조양강(오른쪽)을 이룬다.

아우라지는 송천과 골지천 두 물길이 어우러지는 지점이다. 두 물이 합쳐져 한 물을 이루는데 그 물이 여태 내내 걸음을 쫓아왔던 조양강이다. 정선의 길은 물길과 철길이라고 1코스에서 말했었다. 이제 물길 이야기를 할 차례다. 아니다. 이야기보다는 노래가 낫겠다. 정겹고 익숙한 가락이니 따라 불러도 좋다.

*아우라지 뱃사공아배 좀 건너주게
 짜릿골을동박이 다 떨어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아우라지 뱃사공아배 좀 건너주게’는 정선아리랑의 눈대목(가장 두드러지는 대목)과 같은 구절이다. 아우라지 양쪽에 살던 처녀 총각의 애뜻한 심사가 이 구절에 배어 있다. 정선아리랑.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이자 유

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아우라지는 그 문화유산의 뱃자리다.

정선아리랑은 팔도 아리랑의 시원으로 인정돼 2012년 아리랑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될 때 대표 목록에 올랐다. 정선아리랑은 유래가 분명치 않은 다른 아리랑과 달리 600년이 넘는 내력을 자랑한다. 조선 개국에 반대에 정선까지 숨어들어온 고려인들이 지어 부른 것이 아리랑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다. 정선에서는 아리랑을 ‘아라리’라 이르곤 하는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리오’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정선아리랑이 위대한 것은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민요의 본령을 간직하고 있어서다. 단일 곡조에 3000수가 넘는 가사가 전해 오며, 현재까지 채록된 정선아리랑은 1200수가 넘는다. 이를테면 ‘아질아질 꽃베루 지루하다 성마령/지옥 같은 이 정선을 누굴 따라 여기 왔나’ 같은 대목은 답답한 두메에 갇혀 사는 정선 사람의 애환을 솔직하게 증언한다. 맞다. 가사의 ‘꽃베루’가 방금 넘어왔던 그 벼랑 고개다.



옥산장

아우라지역 왼쪽에 1983년 문을 연 ‘옥산장’이라는 식당 겸 여관이 있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2』(1994)에도 등장하는 유서 깊은 옛날 여관이다. 정선 토박이 김옥매 여사가 손님 앞에서 정선아리랑을 부른다. 앞 못 보는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여관을 꾸려온 30여 년 세월이 구성진 아라리 가락에서 배어 나온다. 김옥매 여사는 1936년생이다. 잠은 안 자더라도 밝은 드시라고 권한다. 감자붕생이를 비롯한 정선 향토 음식이 밥상을 꽉 채운다.



대표음식 덕력구이 정식 1인 1만 2000원
 주소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149-30
 연락처 033-562-0739



아우라지역의 아우라지 처녀 조형물

레일바이크

주소 정선군 여량면 노추산로 745
 이용시간
 ·연중 8시40분, 10시30분, 13시, 14시50분
 ·하절기 16시40분(추가운행)
 요금
 ·2인승 2만5000원 ·4인승 3만5000원
 문의
 ·코레일관광개발(www.railbike.co.kr)
 ·코레일 정선지사 033-563-8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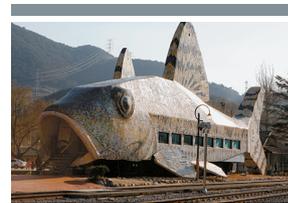
정선 레일바이크는 첩첩산중 정선의 가장 후미진 산골짜기를 달린다.

아우라지에서 길은 송천을 따라 이어진다. 송천 물길에도 철길이 나란한데 여기의 철길은 이전 철길과 다르다. 철길을 달리는 주인공이 기차가 아니라 레일바이크다.

1990년대 석탄산업이 기울면서 정선선 열차도 기력을 잃었다. 한국 철도공사(지금의 코레일)는 2001년 11월 14일을 끝으로 증산역(지금의 민동산역)과 구절리역을 왕복했던 비둘기호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 이날 정선선을 달린 1707호 열차는 한국 철도 역사 최후의 완행 열차로 이름을 남겼다. 정선선 종점은 구절리역이지만, 아우라지역과 구절리역을 잇는 7.2km 구간은 폐선이 됐다. 그곳 기차길에 레일바이크가 들어

섰다. 2005년 6월 30일의 일이다. 정선 레일바이크는 폐선로를 활용한 국내 레저산업의 첫 성공사례다. 용도 폐기된 산업자원이 수익 높은 관광자원으로 거듭났다. 정선 레일바이크의 성공 이후 현재 전국에는 여남은 개 지역에서 레일바이크를 운영하고 있다. 솔직히 지금은 비슷한 시설이 너무 많아서 탈이다. 레일바이크는 구절리역을 출발해 아우라지역까지 완만한 내리막을 달린다. 두 발로 페달을 밟아 시속 3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내리막에 들어서면 제법 속도감이 붙는다. 아우라지역에서 돌아올 때는 서늘열차 '아리아리호'를 탄다. 레일바이크 승객만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다. 열차의 꿈무늬에 빈 레일바이크가 매달려서 구절리역까지 올

라온다. 레일바이크로 내려갈 때는 40분 정도 걸리고 열차를 타고 올라올 때는 20분 정도 걸린다. 구절리역에서 올림픽 아리바우길 2코스가 3코스와 만난다.



여치와 여름치
 정선 레일바이크 출발지인 구절리역에는 무궁화호 객차를 활용한 '여치의 꿈'이라는 카페가 있고, 종착지인 아우라지역에는 천연기념물 제259호 여름치 모양의 '어름치카페'가 있다. 구절리역에서는 기차편선도 운영한다. 기관차 1량, 폐객차 4량을 객실 10개로 개조했다. 호텔급 시설을 갖췄으며 1일 숙박료는 7만~10만원이다. 문의 033-563-8787.



레일바이크 승객을 위한 무료 서늘열차

2코스 여행정보



더덕구이



도토리뚝뚝찜

먹거리

식당명 (음식)	주소 (연락처)
수구래해장국 (해장국·전골)	정선 북평면 서동로 2129 (033-562-9909)
금메달식당 (순대·순대국)	정선 북평면 북평7길 38-4 (033-563-3367)
한우가든 (소고기구이·곤드레밥)	정선 여량면 서동로 2926 (033-562-4059)
옥산장돌라이야기 (곤드레밥정식·더덕구이정식)	정선 여량면 여량3길 79 (033-562-0739)
사계절막국수 (막국수)	정선 여량면 아우라지길 18 (033-563-5999)

숙소

숙소명	주소 (연락처)
다향산방	정선 북평면 단인길 1047 (033-562-3851)
정선 도원펜션	정선 북평면 어도원길 161 (033-563-0548)
솔들마을	정선 북평면 와가길 25 (010-8535-3066)
정선펜션화암별장	정선 북평면 졸드루길 43 (010-3936-0577)
호텔아라리	정선 여량면 여량4길 3 (033-563-3001)
노추산들	정선 여량면 노추산로 414-9 (010-5337-2707, 033-562-8555)
레일바이크펜션	정선 여량면 노추산로 597 (010-4912-5629)
모래불펜션	정선 여량면 송천길 2-51 (033-562-6370)

교통



정선 시내버스터미널 033-563-1094
 2코스 구간을 버스로 이동하려면 북평터미널(나전역)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출발해 여량터미널에서 마을버스로 갈아타야 한다.
 - 북평터미널에서 여량터미널까지 시내버스는 하루 9회 운행한다. 첫차는 6시25분(34인 입계) 막차는 17시15분(15인 고봉)이다.
 - 여량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는 하루 6회 운행한다. 첫차는 8시20분(구절리행) 막차는 19시20분(구절리행)이다.



아라리콜택시 033-592-5000 **정선 아리랑개인콜** 033-592-0000

문의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1544-9053
 강원도 관광협회 033-244-6899

3코스

구절리역~배나드리마을



3코스

길이 | 12.9km 난이도 | 상 시간 | 7시간

구절리역 - 1.3km → 등산로 입구 - 4.6km → 이성대 - 400m → 노추산 정상 - 5.1km → 모정탑 - 1.8km → 배나드리마을

하나의 산이 하나의 길을 이룬다
노추산 자락에 들면서 길이 시작하고
노추산 자락을 나면서 길이 끝난다
올림픽 아리바우길 3코스의 다른 이름은
울곡과 설충을 기리는 노추산이다



노추산 정상 표지석





노추산은 깊고도 깊은 산이다. 인적이 드물어 숲이 자아내는 풍경이 사뭇 이국적이다.

2코스 종점이자 3코스 시작점인 구절리역에서 북동쪽 하늘을 올려다보면 강고한 벽처럼 늘어선 봉우리들이 보인다. 그 봉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노추산이다. 해발 1322m의 노추산은 강릉시 왕산면과 정선군 북면에 걸쳐져 있다. 구절리역에서 노추산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산세가 웅장하기도 하거니와 조고봉

(1188m)·사달산(1169m)·턱우산(1007m) 등 높이 1000m 이상 봉우리들과 어깨를 맞대고 있어서다. 백두대간 남쪽 줄기로 태백산맥에 든다. 이 크고 높은 산을 올림픽 아리바우길이 넘는다. 구절리역의 해발고도가 약 430m이니 약 900m의 비고를 극복해야 한다. 구절리역에서 송천을 따라 걷다

보면 구절교가 나온다. 다리 앞에 올림픽 아리바우길 이정표가 서 있다. 여기에서 길은 산을 에우는 도로로 이어진다. 중동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다. 구절리 중앙에서 동쪽에 있는 마을이어서 중동마을이다. 차도 가장자리를 걸어야 하지만 차가 많지 않아 위험하지는 않다. 500m쯤 차도를 걸어 들어가면 왼쪽으로 노추산 이정표가 보인다. 여

기에서 노추산 산행이 시작된다. 산에 들어갈 때는 정선 땅이지만 산에서 나오면 강릉 땅이다. 산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꼬박 6시간이 걸린다. 3코스는 올림픽 아리바우길 9개 코스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구간이다. 노추산 정상 해발고도 1322m는 올림픽 아리바우길 전체 코스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기도 하다.

노추산 Hot Clip



숲에서 만난 올빼미. 아직 사람 무서운 줄 모르는 녀석이라서 한참 눈싸움을 했다.



죽어서 드러누운 나무 위에 새 생명이 포개졌다. 이제 이 세상의 주인은 이끼다.



숲은 녹눅했다. 습기가 많아 나무에도, 바위에도 버섯이 허다했다.



산에 뜬 계절은 초가을이었다. 여름꽃 투구꽃이 아직 피어 있었다.



이성대 앞 전망대. 멀리 태백 너머 동해의 봉우리들까지 시선에 담긴다.



노추산 깊은 숲에 들어선 이성대. 설총과 울곡을 모시는 사당이다.

노추산(魯鄒山). 이름이 어렵다. 신라시대 설총(655~?)이 노나라의 공자와 추나라의 맹자를 기려 노추산이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강원도 깊은 산에서의 공맹 타령이 뜬금없어 보이지만, 설총과 울곡이(1536~84)가 노추산 자락에서 학문을 닦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아직도 노추산 자락에는 울곡의 흔적이 밴 지명이 곳곳에 남아 있다. 이를테면 노추산 기슭에는 너털지대가 널려 있는데 예부터 '이성(二聖)의 석총(石塚)'이라 불렀다. 두 성현 설총과 이이의 돌무덤이라는 뜻이다. 노추산 남쪽 자락의 '밤나무고개(울목치)'는 울곡이 노추산에 들어와 공부할 때 밤나무 천그루를 심은 고개였으며, 노추산 왼쪽 아래 송천 옆의 '동초밭'은 울곡이 미나리처럼 생긴 동초를 뜯어 나물을 먹었다는 논이었다고 한다. 노추산 산행이 끝나는 모정탐길 어귀에는 '구도장원비'가 서 있다. 울곡이 노추산에서 학문을 닦으며 쓴 글을 새긴 비석이다.

울곡의 흔적이 가장 두드러진 현장은 역시 '이성대(二聖臺)'다. 노추산에 들어온 두 성현 설총과 이이를 기리기 위해 50년쯤 전 한 강릉 주민이 지은 사당이다. 정상 바로 아래 해발 1288m 지점에 있다. 사당은 2층 목조건물로, 2층에 성현의 위패와 영정이 모셔져 있다. 구절리 사람들이 음력 9월 중정(中丁)이면 두 성현에게 제를 올린다.



노추산 산행은 아끼지 않는 재미가 있다. 깊은 숲을 통과하면 거친 바위가 비탈을 이룬 너털지대가 나온다.

이성대에서 내다보는 산세가 압권이다. 사당 앞에 설치한 전망대의 조망이 빼어나다. 겹겹이 포개지고 층층이 얽힌 산자락이 하염없이 이어진다. 날이 좋으면 멀리 태백의 매봉산(1303m)과 동해의 두타산(1353m)까지 보인다.

노추산은 힘들지만 재미있는 산이다. 산이 여러 모습을 품고 있어 산행이 지루하지 않다. 노추산의 첫 인상은 깊은 숲이다. 인적이 없어 적요한 숲. 바위에는 이끼가 무성하고, 길옆에는 버섯이 허다한 숲이다. 사람 무서운 줄 모르는 올빼미와 한동안 눈싸움을 하기도 했다.

산행을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나면 웅달샘이 나온다. 쉽터도 마련돼

있다. 여기가 해발 1030m 지점이다. 노추산은 눈이 쌓인 풍경이 일품이어서 산악회가 겨울 산행지로 손꼽는 명산이다. 그러나 노추산은 가을 단풍도 겨울 설산에 못지않아 보였다. 웅달샘 주변이 단풍 고운 침엽수로 빼뻑하다. 생각해보니 다른 계절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 인적 드문 숲은 들풀 세상이어서 노추산의 봄과 여름은 야생화 천국일 터이다. 노추산에 들었던 계절이 마침 가을 어귀여서 별 좋은 풀숲에는 구절초가, 녹녹한 길옆에는 투구꽃이 피어 있었다.

깊은 숲을 헤치고 나오면 가파른 산비탈에 너털지대가 펼쳐진다. 거친 바위가 울퉁불퉁 돌은 너털

지대에서 내다보는 전망도 시원하다. 이성대에서 노추산 정상까지 약 400m 구간이 제일 가파르다. 어느 산이나 턱밑에 '갈딱고개' 하나를 두고 산다는 어느 산악인의 충고는 노추산에서도 유효하다. 정상 전망은 이성대 전망보다 못하다. 옷자란 나무가 시야를 가린다. 정상에서 오솔길을 한참 내려오면 임도가 시작한다. 임도 끝에서 길은 다시 숲으로 들어간다.

정선 자락의 올라가는 길이 짙은 그의 숲길이라면, 강릉 자락의 내려오는 길은 물소리 발랄한 계곡길이다. 계곡길이 약 3km나 이어진다. 계곡 물소리가 잠잠해질 즈음 상상도 못했던 비경이 모습을 드러낸다.



산행 시간이 지나면 만나는 웅달샘



울곡이 썼다는 글씨가 새겨진 비석



정상에서 내려오면 계곡이 이어진다.



단풍 흥건한 모정탑길. 모정탑길은 올림픽 아리바우길이 발굴한 최고의 비경이라 할 수 있다.

모정탑길

모정탑길. 강릉시청 안내자료에 할머니 혼자 돌탑을 쌓은 계곡길이라고 짧막하게 소개되어 있다.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눈앞에 펼쳐진 장관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돌탑이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이다. 길이 500m가 넘는 계곡을 따라 어른 키 높이의 돌탑 수천개가 촘촘히 서 있다. 안내판에는 3000개라고 적혀 있지만 훨씬 많아 보인다.

“차순옥이라는 강릉 아주머니가 노추산 계곡에 들어와 돌탑을 쌓았어요. 남편이 원인 모를 병에 걸리고 자녀도 병으로 죽었대요. 어느 날 아주머니가 돌탑 3000개를 쌓으면 우환이 가시고 가족이 평안할 것이라는 꿈을 꿔답니다. 꿈을 꾸 다음 돌탑을 쌓을 곳을 찾아 해마다 노추산 자락까지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는 계곡에 움막을 짓고 26년 동안 혼자 돌탑을 쌓다



차순옥 여사가 홀로 기거한 움막. 강릉시청이 최근 정비했다.

가 2011년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예순여섯 살이었으니까 마흔 살부터 계곡에 들어와 혼자 살았던 겁니다. 돌탑이 못해도 4000개는 넘습니다.”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마을회의 오과현 사무국장이 들려준 돌탑에 얽힌 사연이다. 아주머니 혼자 이 엄청난 돌탑을 쌓았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돌탑이 많기도 하거니와 성인 남자가 버거울 만큼 큰 돌도 많다. 움막 안에 탐방객이 놓고 간 지폐 몇 장이 있었다. 지독히 가혹했던 한 여자의 생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여겨졌다.

모정탑길은 올림픽 아리바우길이 발굴한 최고의 비경이라고 할 수 있다. 모정탑길에서 나오면 노추산 산행이 끝난다. 모정탑길 어귀 주차장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3코스 종점 배나드리마을이다.

3코스 여행정보

먹거리·숙소

상호	주소 (연락처)
노추산 김목식당·펜션 (쿠팡치기국수)	정선 여량면 구절리 751 (033-583-2877)
송죽 펜션·식당	강릉 왕산면 노추산로 570 (033-563-3592)

교통



정선 시내버스 터미널 033-563-1094
강릉 시내버스 033-640-5252
강릉 시외버스 033-643-6092
 3코스가 끝나는 지점인 배나드리마을에서 강릉 시내까지는 하루 3회 시내버스(507번)를 이용할 수 있다.
 - 강릉 시내(공단) → 배나드리마을 6시, 12시, 17시
 - 배나드리마을 → 강릉 시내 8시10분, 13시45분, 18시50분



정선 아리리콜택시
033-592-5000
정선 아리랑개인콜
033-592-0000

강릉 친절콜
1588-8234
강릉 K-콜
033-648-0000
강릉콜
033-653-2288
강릉 명주콜
033-662-2253
강릉 개인택시
033-651-1155

문의

정선군청 문화관광과 1544-9053

강릉시 종합관광안내소

033-640-4414, 4531

강원도 관광협회 033-244-6899

An aerial photograph of a lush green valley. A river flows from the top left towards the bottom center. On the right side, a large concrete dam spans across the river, with water cascading over its spillways. The surrounding hills are covered in dense, vibrant green forest. A road or path is visible on the left side of the river. The overall scene is a beautiful natural landscape.

4코스

배나드리마을~안반데기

4코스

길이 | 14km 난이도 | 중 시간 | 6시간

배나드리마을 - 6.2km → 바람부리마을 입구 - 2.1km → 도암댐 팔각정 - 3km → 안반데기 입구
- 2.7km → 안반데기

길을 송천물길을 돌고 돌고 또 돈다
물길 따라 우리네 삶도 흘러왔다
때로는 서러웠고 때로는 흥에 겨웠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서글픈 가락을 마지막으로 읊조린다



도암댐수문





올림픽아리바우길 4코스는 송천 물길을 내내 곁에 둔다. 아늑하고 포근한 숲길이 십리 넘게 이어진다.

4코스는 배나드리마을에서 시작한다. 한자 이름은 선도리(船渡里). 배가 드나드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배나드리'라는 이름이 입에 착 감긴다. 행정구역은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에 속한다. 4코스를 걷는 건 배나드리마을의 이름을 풀이하는 일일지 모르다. 여태 걸어온 길의 내력이 마을 이름에 죄 담겨 있기 때문이다. 4코스는 안반데기를 오르는

마지막 2.7km 오르막 구간을 제외하곤 내내 송천 물길을 곁에 둔다. 길 앞에서 행정구역은 무의미하다. 노추산을 넘어오기 전 3코스의 구절리는 원래 강릉 땅이었다. 구절리가 강릉에서 정선으로 넘어온 건 1973년의 일이다. 4코스의 시작점 배나드리마을은 강릉에 속하지만, 길이 끝나는 지점은 평창에 들어간다. 도암댐부터 평창 땅이다. 평창올림

픽이 열리는 세 고장이 이 언저리에서 애매하고 모호한 경계를 짓는다. 대관령을 기점으로 강릉은 영동 지방에 속하고 정선과 평창은 영서 지방으로 불리지만, 대관령 아래자락에 얽혀 사는 삶에게는 딱히 관계가 없는 경계다. 정선의 구절리와 강릉의 대기리는 예부터 제가 속한 읍내의 일상과 무관하게 끼리끼리 어울려 살았다. 지금도 그들의 삶은

바깥 세상과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 고립과 단절. 지도에도 표시가 잘 안 돼 있는 이 두메의 오랜 정서다. 올림픽 아리바우길이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세 고장을 이은 것은 그래서 소중한 작업이다. 정선의 구절리, 강릉의 대기리가 아니라 송천 물길 나뉘어 쓰는 구절리와 대기리를 다시 불러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오라지 물길을 따라 정선 땅에서부터

걸어왔다. 인간이 임의로 그은 금은 애초부터 관계가 없었다. 무연히 걷다 보니 정선 땅이 끝났고, 묵묵히 오르다 보니 강릉 땅에 들어섰다. 하여 앞서 마치지 못한 정선의 물길 이야기를 강릉 땅에 들어와서 끝맺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1코스는 조양강 물길을 거슬러 올라왔다. 2코스의 물길은 아우라지까지 조양강이었고, 아우라지에

서 구절리까지는 송천이었다. 3코스는 구절양장 송천을 아랫도리에 두른 노추산을 올랐다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왔으니 다시 강을 따라 길을 차려다. 배나드리마을 앞을 흐르는 개천이 송천이다. 마을을 뒤로하고 송천을 거슬러 오르면 도암댐이 물길을 막는다. 댐이 강물을 가둬 호수를 빚었다. 이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결국 그 물이 그 물이다.



송천(松川)은 '소나무 내'다. 이름처럼 양옆으로 아름다운 양옆의 소나무를 두르고 있다.

물길의 내력을 짚어본다. 송천은 평창군 황병산(1407m) 계곡에서 흘러내려 정선군 구절리와 유천리를 지나 아우라지에 이르는 67.5km 길이의 물길을 말한다. 송천이 아우라지에서 골지천을 만나면 조양강이 된다. 골지천은 태백시 금대봉(1418m) 계곡에서 발원해 아우라지에서 송천과 합칠 때까지 93.75km 이어지는 물길이다.

조양강이 정선군 가수리에서 동대천을 받아들이면 동강이 된다. 동강(東江)은 영월의 동쪽에 있어서 동강이다. 하여 '오동나무 동' 자를 써 동강(桐江)이라고 따로 부르는 정선 사람도 많다. 동강이 영월에서 서강과 섞이면 남한강이라 불리고, 남한강이 두물머리에서 북한강과 어울려 비로소 한강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내 한강의 조

상을 좇아 걸어온 셈이다. 한강의 아버지(남한강)의 아버지(동강)의 아버지(조양강)의 아버지(송천)까지 찾아봐서 이 먼 길을 나선 것이다. 물은 하나인데 이렇게 이름이 많다. 이름이 많으니 사연도 많다. 옛날 한양 광나루까지 내려갔던 뗏목이 이 물길을 올라탔다. 배나드리마을이



송천 물길에 내려앉은 알록달록 단풍

옛날 뗏목이 뗏목을 띄웠던 나루터 중에서 제일 북쪽에 있던 나루터다. 정선 물길에 얽힌 사연을 강릉 땅에서 늘어놓는 까닭이다.

뗏목. 그래, 이 물길에는 뗏목이라 불리던 삶이 있었다. 뗏목의 역사는 1876년 대원군의 경복궁 복원사업에서 시작한다.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경복궁을 복원하려면 온 강산의 소나무가 필요했다. 철침산중 강원도는 가장 중요한 소나무 원목 공급처였다. 문제는 운송 경로였다. 물의 길이 변변치 못했던 시절이었다. 고민 끝에 찾아낸 길 이 남한강 물길이었다. 남한강 천리 길은 이렇게 열렸다.

뗏목의 작업은 고달팠다. 남한강에는 황새여울·똥까리 같은 악명 높은 여울이 많았다. 하여 뗏목이 한번 뗏목을 띄워 서울을 갔다 오면 큰돈을 만질 수 있었다. 나무 값에 목숨 값이 얹혀졌기 때문이다. '뗏목'이라는 말이 이 물길에서 비롯됐다. 뗏목, 아니 뗏목을 기다리는 주막도 나

루터마다 들어섰다. 동강 어라연의 '전산옥'은 정선아리랑에도 등장하는 전설적인 주막이다. '황새여울 똥까리 뗏목을 띄워 놓았네/만지산에 전산옥이야 술상 차려 놓게나' 정선아리랑은 남한강 물길 따라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정선아리랑의 고향은 뗏목이 제 목숨과 맞바꿨던 막걸리 한 사발이었을지 모른다.

송천 물길을 따라 이어진 길은 도암댐 앞까지 내내 곱고 편안하다. 시멘트 포장 구간이 대부분이지만, 경사가 거의 없어 어려움이 없다. 무엇보다 숲길이 아늑하다. 길 왼쪽으로는 반짝이는 강물이 흐르고 오른쪽으로는 가파른 산이 서 있다. 저산위에 안반데기가 숨어 있다. 고개를 드니 마루금 위로 안반데기 풍력발전기가 살짝 모습을 드러낸다.

배나드리마을에서 도암댐 입구까지 약 10km나 이어지는 천변 길은 올림픽 아리바우길에서 손꼽히는 명품 구간이다. 봄에는 길가의 아름드리 신배나무가 흰 꽃을 흩뿌리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서늘한 그늘을 드리우고, 가을에는 발왕산(1458m) 자락에서 내려온 울긋불긋 단풍이 시야를 적시고, 겨울에는 뽕뚝뽕뚝 소리 내는 포근한 눈길 이 될 터이다. 안내판을 보니 2010년 길을 닦았다고 나와 있다. 자동차 도로라지만 통행량이 거의 없다. 마음 맞는 길동무와 도란도란 이야기 하며 걷고 싶다. 올림픽 아리바우길 이 찾아낸 또 하나의 비경이다.



단풍 고운 송천 물길. 물길 따라 아늑한 숲길이 이어진다.



4코스는 안반데기 아래를 파고든다. 단풍 물든 마루금에 안반데기가 숨어 있다.



폐광처럼 생겼지만 산너머 도암댐의 수로다. 지금은 막혀 있다.



지도에는 '바람부리'라고 나와 있지만 안내판에는 '바람불이'라고 적혀 있다.

도암댐



도암댐의 가을. 사람이 만들어낸 풍경이지만 아름답다.

바람부리마을 안내관을 지나면 길은 도암댐 구간으로 진입한다. 경사가 가팔라지고 시멘트 포장에 흠뻑 해진다. 바람부리마을은 송천 건너편 산비탈에 숨은 산촌이다. 이름이 눈에 밝힌다. 말하자면 '바람이 불어오는 마을'이라는 뜻이겠다. 발왕산 골짜기를 타고 내려온 바람이 이 마을에서 모였다가 송천 물길의 뗏목을 밀어준다는 뜻이 담겨 있다. 예쁘고 대견한 이름이다.

도암댐 입구에서 내려다보이는 송천 계곡은 거대한 협곡이다. 로키산맥의 협곡이 부럽지 않은 장관이다. 도암댐 너머로 발왕산 정상에 용평스키장 곤돌라 타워가 멀리서 있다. 저기 저 산자락에서 평창올림픽 스키 종목이 열린다. 도암댐부터

평창 땅이다. 다시 말하지만 길 위에서 사람이 그은 경계는 무의미하다. 황병산 자락에서 내려온 송천 냇물을 도암댐이 가두면 호수물이 되고, 댐이 호수물을 흘려보내면 다시 송천 냇물이 된다.

도암댐은 1991년 준공됐다. 애초에는 동해안 최초의 수력발전소로 시작했다. 백두대간 아래에 수로를 뚫어 송천 물길이 강릉 남대천을 거쳐 동해로 빠지게끔 방향을 틀었다.



도암댐 팔각정

그러나 도암댐은 준공 이태 뒤에 수력발전을 정지했다. 대관령 일대 축산 폐수로 인해 남대천 오염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면서 억지로 틀었던 물길도 원래대로 돌아왔다.

여태 지켜봤듯이 송천은 남한강으로 흘러내려 서해와 합쳐지는 물길이다. 남한강 천 리 길을 지니며 강물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이 바꾼 급하고 짧은 물길은 스스로 정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도암댐이 자랑하는 특징들, 이를테면 국내 최대 낙차(640m)나 국내 최대 수로(15.6km) 따위는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연 발전량 1억8000만kWh도 물거품처럼 날아갔다. 지금의 도암댐

은 인공호수로만 존재한다.

벽처럼 막아선 산을 뚫고 물이 쏟아져 내리는 장면은 가위 장관이다. 댐 높이가 72m이니까, 72m 높이의 인공폭포가 물을 퍼붓는 꼴이다. 입이 떡 벌어지는 장면이기는 한데, 감탄만 늘어놓을 수 없는 노릇이다. 도암댐의 딱한 처지를 알고 있어서이다. 자연은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 아니다.

도암댐에 들어선 길은 호수를 따라 이어진다. 도암호를 돌아오면 피골 어귀에서 산으로 난 길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부터 2.7km 길이의 산길이 시작된다. 약 300m의 비고를 극복하면 마루금에 올라선다. 해발 1010m의 피덕령. 구름 아래 첫 마을 안반데기의 창구다.

4코스 여행정보



안반데기 마을(www.안반데기.kr)에서 카페와 숙소를 운영한다. 피덕령 산거리 '안반데기 심터'에서는 커피(3000원)·감자떡(6000원) 따위를 팔고, 귀틀집을 복원한 '운유촌'은 펜션으로 운영된다. 투숙객을 대상으로 감자밥(1인분 1만원) 같은 음식도 판매한다. 033-655-5119.

먹거리

식당명 (음식)	주소 (연락처)
산골식당 (닭 백숙·뽕음탕, 오리 숯불구이·능이백숙)	평창 대관령면 수하로 673-3 (033-335-1281)
수하개울가집식당 (토종닭 백숙·뽕음탕)	평창 대관령면 수하로 649 (033-335-1288)

숙소

숙소명	주소 (연락처)
비올라펜션	평창 대관령면 수하길47 (033-335-5628)
풀향기펜션	평창 대관령면 수하로 660-4 (033-334-2236)

교통



강릉 시내버스 033-640-5252
4코스가 끝나는 지점인 안반데기입구(감자원종장)에서 강릉시내까지 하루 3회 시내버스(507번)를 이용할 수 있다.
- 강릉시내(공단) → 감자원종장 : 6시, 12시, 17시
- 감자원종장 → 강릉시내 : 8시 20분, 13시 50분, 19시



평창택시 033-332-3666
삼일택시 033-336-0229
진부택시 033-335-9208

횡계택시 033-335-5596
대관령면 개인택시
033-335-5960

문의 **강릉시 종합관광안내소** 033-640-4414, 4531
평창군 관광안내센터 033-330-2771
강원도 관광협회 033-244-6899



5코스

안반데기-대관령휴게소

5코스

길이 | 12.1km 난이도 | 중 시간 | 5시간

안반데기 피덕령 - 1km → 멩에 전망대 - 4km → 고루포기산 - 1km → 황계 전망대 - 4.1km → 능경봉 - 2km → 대관령휴게소

해발 1000m 마루금에 펼쳐진 배추밭
안반데기는
우리네 삶이 일군 가장 벽찬 장면이다
길은 배추밭을 지나
백두대간으로 들어간다



멩에 전망대



안반데기



해돋이 안반데기는 구름 위 세상이다. 발아래로 구름 바다가 꿈틀거린다.

안반데기는 우리네 삶이 일군 가장 감동적인 풍경이다. 5코스는 안반데기를 품고 있어서 올림픽 아리바우길 9개 코스를 대표하는 구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안반데기는 그만큼 벅찬 장면을 보여준다.

안반데기는 배추밭이다. 그래, 기껏해야 배추밭밖에 안 된다. 다만 다르다면, 배추밭이 들어선 자리다. 백두대간과 만나는 가파른 산비탈에 배추밭이 펼쳐져 있다. 1.95km²면적으로 국내 고랭지 배추밭 가운데 가장 넓다.

1.95km² 면적이라면 감이 안 온다. 주민 수 2만6000명이 넘는 서울 옥수동이 딱 이만하다. 하도 넓어 시야가 배추밭을 다 담지 못한다. 해발 1000m의 안반데기는 국내에서 주민이 거주하는 가장 높은 지대이기도 하다. 현재 안반데기에서 배추농사를 짓는 농가는 28가구다. 행정구역은 강릉시 왕산면 대기4리에 속한다.

안반데기는 1965년 배추밭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는 강원도 산자락에 흩어져 살던 화전

민들을 해발 1000m 산 위로 올려 보냈다. 직접 가꾼 땅은 가꾼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나라의 제안에 화전민은 솔깃했다. 그러나 자갈투성이 비탈을 일구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경사가 너무 심해 농기계를 쓸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소를 끌고 이 가파른 비탈을 헤집고 다녔다. 식량은 커녕 식수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다. 가을이면 도로로 꼬리를 때웠고, 겨울이면 밤새 내린 눈이 길을 지웠다. 눈 내린 다음날이면 헬리콥터가 날아와 음식을 던져줬다. 그 현장을 TV

뉴스가 꼬박꼬박 중계했다. 그리고 보니 96년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이 발발했을 때 북한군이 숨어들었던 강원도 깊은 자락도 안반데기였다.

요즘 들어서는 관광객의 발길이 잦아졌다. 비탈 심한 배추밭이 자아내는 이국적인 풍광 덕분이다. 안반데기에서는 추석 전에 배추를 수확한다. 하여 늦여름에 올라와야 배추를 사진에 담아갈 수 있다. 겨울에는 눈부신 설국으로 변신한다. 안반데기는 기록적인 폭설로 악명이 자자한 지역이다. 겨울의 안반데기



고랭지 배추밭에도 아침이 내려왔다. 안반데기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다.



5코스는 안반데기의 3분의1도 지나지 않는다. 코스에서 일부러 벗어나 배추밭 구석구석 다니시기를 권한다.

는 손꼽히는 눈꽃 트레킹 명소다. 별 자리를 찾거나 해맞이를 하러 안반데기를 오르는 사람도 많다. 마을에서 산촌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안반데기의 표기는 분명하지 않다. 안반덕·안반덕이 등이 섞여 쓰인다. 딱베로 쌀을 내리칠 때 쓰는 '안반' 처럼 생긴 '덕'(산 위에 형성된 평평한 구릉지대)이라는 뜻으로, 안반데기는 강릉 사람이 부르

는 이름이다. 4코스 끄트머리 언덕 길의 끝나는 지점이 피터령이다. 여기가 정확히 해발 1000m다. 배추밭은 해발 1000~1100m 비탈에 자리한다. 피터령에 올라선 길은 멩에 전망대를 들렀다 나온다. 멩에는 마소의 목에 없는 구부러진 막대다. 전망대가 들어선 자리가 멩에처럼 생겼다고 한다. 멩에 전망대는 안반데기 배

추밭이 가장 잘 드러나는 지점이다. 돌담도 쌓고 정자도 올려 제법 분위기가 그윽하다. 안반데기가 산촌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 새로 들였다. 멩에 전망대에서 내려다보이는 배추밭은 기하학적 곡선을 그린다. 산비탈의 배추밭이 연출하는 화면이 훨씬 입체적이고 역동적이다. 길은 배추밭 사이 농로를 따라

북쪽으로 이어진다. 멩에 전망대에서 4km를 나아가 맨 마지막 풍력발전기 앞에 다다르면 왼쪽 숲 앞에 이정표가 서 있다. 이정표 아래에는 나무계단이 있고, 계단 너머로 야자매트가 깔려 있다. 올림픽 아리마우길을 조성하면서 들인 시설이다. 여기에서 안반데기 구간은 끝난다. 숲 안쪽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안반데기의 계절



안반데기의 여름. 고랭지 배추밭 안반데기의 전성기다.



안반데기의 가을. 배추를 거둔 뒤의 안반데기는 너른 초원으로 변신한다.



안반데기의 겨울. 푸르렀던 배추밭이 눈부신 설원으로 탈바꿈한다.

백두대간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설악산~태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1400km 길이의 산줄기를 이룬다. 남한에는 지리산에서 진부령까지 약 670km 구간이 백두대간에 속한다. 조선 영조 때 실학자 신경준(1712~81)이 쓴 『산경표(山經表)』에서 처음 사용했다. 백두대간에는 ‘한반도의 모든 산은 백두산과 통한다’는 한 국민의 자연관이 담겨 있다.



백두대간의 품속이어서 숲이 자아내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다.

5코스는 크게 두 구간으로 나뉜다. 안반데기 구간이 약 5km에 이르고, 나머지 약 7km 구간은 백두대간이다. 안반데기를 지도에서 보면 남북방향으로 날개를 편 나비처럼 생겼는데, 북쪽 끝머리에 고루포기산(1238m)으로 연결되는 오솔길이 있다. 앞서 말한 아자메트 깔린 구간이다. 고루포기산 정상에서 강릉과 평창이 갈라진다. 고루포기산에서 능

경봉(1123m)을 거쳐 대관령 휴게소(835m)까지 올림픽 아리바우길은 백두대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는다. 이 7km 남짓한 산길이 올림픽 아리바우길에서 유일한 백두대간 구간이다. 백두대간에 드는 일은 여느 산행과 의미가 다르다. 백두대간이 한반도의 등뼈와 같은 산줄기여서이다. 산세를 개별 봉우리가 아니라 하나

의 흐름으로 파악하는 것은 우리만의 문화다. 그것도 그 뿌리가 백두산이다. 우리 민족은 산에서도 관계와 맥락을 잃어낸다. 백두대간 산행은 평범한 경험이 아니지만, 일단 대간에 들면 그리 고달프지 않다. 무난한 경사의 산마루를 따라 숲길이 이어진다. 더욱이 고루포기산~능경봉~대관령 구간은 대체로 내리막을 이룬다. 행운

의 돌탑 근방에서 능경봉 정상으로의 구간만 오르막이 있다. 5코스는 올림픽 아리바우길 중에서 가장 높은 지대를 통과한다. 그러나 난이도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5코스 백두대간 구간은 강릉과 평창의 경계이지만, 행정구역은 평창에 속한다. 횡계 전망대에서 평창 쪽이, 능경봉 전망대에서는 강릉 쪽이 내려다보인다.

5코스 여행정보

먹거리

상호 (음식)	주소 (연락처)
운유촌 (커피·감자떡)	강릉 왕산면 안반데기길 428 (033-655-5119)
바람의언덕 (커피)	평창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365 (033-332-2330)

숙소

상호	주소 (연락처)
안반데기 운유영농조합법인	강릉 왕산면 안반데기길 428 (033-655-5119)
마리하우스	평창 대관령면 가시마리길 52-30 (033-332-1010)

교통

버스 강릉 시내버스 033-640-5252
5코스 종점 주변 대관령박물관까지 강릉 시내버스(503번)를 이용할 수 있다. 평일 기준 하루 17회 운행한다.
- 강릉(안목)출발 → 대관령박물관 첫차 6시 55분, 막차 21시 20분
- 대관령박물관 → 강릉(안목) 첫차 7시 10분, 막차 22시 5분
주말에는 강릉(안목)에서 대관령휴게소까지 503-1번 버스를 1회 운행한다.

택시 횡계택시 033-335-5596
대관령면 개인택시 033-335-5960

강릉 전철콜 1588-8234
강릉 K-콜 033-648-0000
강릉콜 033-653-2288
강릉 명주콜 033-662-2253
강릉 개인택시 033-651-1155

문의
평창군 관광안내센터 033-330-2771
강릉시 종합관광안내소 033-640-4414, 4531
강원도 관광협회 033-244-6899



6코스

대관령휴게소~보현사 버스종점

6코스

길이 | 14.7km 난이도 | 중 시간 | 6시간

대관령휴게소 - 2.5km → 국사성황당 - 1.9km → 반정 - 3.1km → 주막터 - 2.9km → 가마교
- 4.3km → 보현사 버스종점

대관령아흔아홉굽이마다맺힌 눈물
그질긴 한숨의 힘으로 고개를 넘는다



대관령옛길 반정 이정표. 옛 영동고속도로 구간에 있다.



대관령



대관령의 겨울은 대한민국의 겨울 상징하는 풍경이다.

대관령(大關嶺)은 해발 835m의 고개다. 그러나 여느 고개와 차원이 다르다. 고개가 아무리 험해도 '큰 대(大)' 자는 함부로 붙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대관령은 삼국시대에도 '큰 고개(大嶺)'로 불렸다. 우리 강산에는 대관령보다 훨씬 높고 훨씬 험한 고개가 허다하지만, '큰 관문'으로 예우하는 고개는 대관령뿐이다.

대관령은 강릉시 성산면과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리를 가르는 고개다. 대관령 동쪽이 영동지방이고, 서쪽이 영서지방이다. 관동지방이

라는 지명도 대관령에서 비롯됐다. 고개를 사이에 둔 두 마을의 생활은 판이했다. 대관령은 두 마을에 세상의 끝이었다.

대관령 깊은 숲에 신당 두 곳이 모셔져 있다. 산신(山神) 김유신(595~673) 장군과 국사성황신(國師城隍神) 범일국사(810~889)를 모시는 신당이다. 올림픽 아리바우길 6코스 시작점인 대관령 휴게소에서 백두대간 옆 오솔길을 2.5km 나아가면 나타난다. 여기에서 강릉 단오제가 시작된다.



대관령 국사성황당

대관령 스케치



대관령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 양떼목장



대관령 지나 선자령. 두 고개 모두 백두대간이다.



대관령과 더불어 선자령도 눈꽃 트레킹 명소다.

조선 광해군 때 쓰인 『임영지』에 최초의 기록이 있다. '936년 강릉에 사는 왕순식이 태조 왕건을 도우려 병사를 이끌고 원주로 향할 때 대관령에 있는 사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전쟁에서 이긴 뒤로 계속 제사를 지낸다'는 구절이다. 이 기록이 강릉단오제의 기원과 함께 대관령의 유래도 설명한다. 1000년이 넘는 전통 덕분에 강릉단오제는 200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다. 대관령은 강릉단오제의 고향과 같은 성지다.

대관령 옛길



대관령에 알록달록 단풍이 내려앉았다. 드론을 띄워 대관령의 가을을 내려다봤다.

6코스는 주제가 분명한 구간이다. 대관령을 터덜터덜 내려와 고개 아랫마을에 들어서면 길이 끝난다. 내내 내리막이 이어진다. 6코스 시작점 대관령(835m)에서 종점 보현사 버스종점(220m)까지 600m 남짓한 비고가 있다. 무릎만 꿇었다면 꼭 걸어 내려오길 권한다. 대관령옛길을 고스란히 품고 있어서이다.

대관령옛길은 스스로 문화재다. 문화유산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길 자체가 문화유산이다. 대관령옛길 약 6.3km 구간이 2010년 명승 제74호로 지정됐다. 대관령옛길은 고려시대 처음 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추 1000년 묵은 길이다. 지금처럼 우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길을 넓힌 것은 조선 중종때 강원도 감사사로 부임한 고형산(1453~1528)의 공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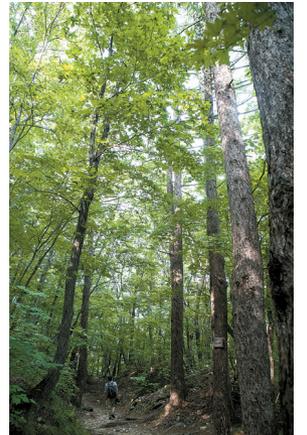
길은 국사성황당에서 대관령을 내려간다. 반정까지 꼬불꼬불한 숲길이 이어진다. '대관령 아흔아홉 굽이'라는 말이 있다. 강릉 선비가 과거를 보러 대관령을 넘을 때 곳감 100개를 챙겨 굽이를 지날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었

는데 정상에 오르니 하나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길은 구멍이처럼 깊어 있다. 길이 한없이 흰 것도, 크게 팬 것도 애오라지 사람의 흔적이다. 흥터일 수도, 주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길은 옛 영동고속도로(456번 지방도로)를 지나 반정(半程)에 다다른다. 강릉시 구산면과 평창군 황계면(지금의 대관령면)의 중간이어서 반정이다. 강릉에서는 '반쟁이'라고 한다. 반정 위가 '웃반쟁이'고, 반정 아래가 '아랫반쟁이'다. 반정은 강릉 시내와 동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대관령 최고의 전망 포인트다. 붓짐장수도, 소금장수도, 과거 보러 가는 선비도, 과거에서 또 떨어진 선비도 여기에 서서 제 길을 내려왔을 터이다. 신사임당(1504~51), 율곡이이(1536~84), 송강 정철(1536~93), 김홍도(1745~?), 홍선대원군(1820~98)도 여기 어디에서 땀을 식혔을 것이다. 반정 전망대에 시비가 서 있다. 신사임당이 강릉 친정에서 서울 시택으로 가는 길에 남긴 철연절구 한시가 새겨져 있다. 대관령을 읊은 허다한 시문 중에 최고로 꼽힌다.



대관령옛길 중간에 있는 주막터. 지금은 쉼터로 쓰인다.



대관령옛길은 구멍이처럼 깊어 파였다.



‘대관령 아흔아홉 굽이’라고 한다. 그만큼 길이 휘어져 있다.



계곡을 건너는 대관령옛길 탐방객들



대관령옛길 아랫구간은 소나무 우거진 숲길이다.



대관령옛길 아랫구간은 계곡길이다. 물소리가 요란하다.

반정에서 길은 다시 숲으로 들어간다. 꼬부랑꼬부랑 흠길도 다시 이어진다. 굽이가 많아 경사가 급하지 않다. 그래, 힘들면 돌아가면 된다. 길은 늘 세상 사는 이치를 일러준다. 반정에서 3km 남짓 숲길을 걸으면 옛 주막터가 나온다. 2008년 강릉시가 복원한 초가 주막으로 탐방객을 위한 쉽다. 음식을 팔지는 않는다. 주막터부터 경쾌한 물소리가 부지런히 쫓아온다.

*늙으신 어머니를 고향에 두고
외로이 서울로 가는 이마음
돌아보니 북촌은 아득도 한데
흰 구름 저문산을 날아내리네*

다시 3km 즈음을 내려오니 길 왼편에 우주선 모양의 화장실이 나타난다. 대관령옛길이 끝나는 지점이다. 여기는 ‘원울이터’라는 이름이 내려온다. 이름 그대로 ‘원님이 울던 데’라는 뜻이다. 강릉 부사가 부임할 때는 길이 험해서 울었고,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서운해서 울었다고 한다. ‘제병이’라는 지명도 있다. 길손에게 숙박 편의를 제공했던 ‘제민원’의 강릉 사투리다. 지금의 대관령박물관 자리에 있었다.

대관령옛길 끝나도 올림픽아리바우길은 아직 남았다. 보광리 쪽으로 마을길과 농로를 따라 4km 남짓 더 나아가야 한다. 보현사 어귀에 있는 버스중점이 6코스 중점이다.

6코스 여행정보



대관령자연휴양림

1988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조성된 자연휴양림. 대관령옛길이 끝나는 지점 바로 옆에 있다. 숲속의집 객실 37개가 있는데 인터넷(www.huyang.go.kr) 예약만 가능하다. 강릉시 성산면 삼포암길 133. 033-641-9990.



성산 먹거리촌

대관령옛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약 3km 떨어져 있다. 대구머리찜을 하는 식당이 모여 있는 골목이다. 언론에 여러 번 소개됐던 ‘옛카나리아’ 본점이 여기에 있다. 대구머리찜 4인분 3만5000원. 성산면 구산길 74. 033-641-9502. 대구머리찜 골목 옆의 ‘숲속집’은 번호표를 받고 기다려야 하는 강릉의 대표적인 맛집이다. 순대국밥 7000원, 모듬순대 1만5000원. 성산면 칠봉로 15-7. 033-641-9122.

먹거리

식당명 (음식)	주소 (연락처)
대관령마을휴게소 (한식)	평창 대관령면 경강로 5721 (033-332-3383)
옛길맛나가든 (닭백숙·닭도리탕)	강릉 성산면 대관령옛길 136 (033-641-9979)
대관령옛길주막 (전통·민속주)	강릉 성산면 대관령옛길 106 (033-642-5672)
삼포암힐터 (닭백숙·오리주물럭·웃닭)	강릉 성산면 부동길 6 (033-641-9091)
시골할머니추어탕 (추어탕·삼계탕)	강릉 성산면 솔밭길 16 (033-644-8714)
과객 (한정식)	강릉 성산면 갈매간길 8-3 (033-644-9150)
오남이네 (대구머리찜)	강릉 성산면 구산길 66 (033-644-5355)
고단식당 (만둣국·황태뚝배기·막국수)	강릉 왕산면 백두대간로 57-10 (033-648-3955)
초원쌈밥 (쌈밥)	강릉 성산면 구산길 63 (033-641-9588)
산촌식당 (한식)	강릉 성산면 구산길 83 (033-641-9230)

숙소

숙소명	주소 (연락처)
대관령느린마을	평창 대관령면 7시머리길 36-16 (033-553-0800)
대관령우주선펜션	강릉 성산면 대관령옛길 129 (033-655-6622)
대관령마을야생화펜션	강릉 성산면 삼포암길 57 (033-648-0406)
대관령안골황토펜션	강릉 성산면 삼포암길 20-40 (033-648-8084)

교통



강릉 시내버스 033-640-5252 **평창 황계시외버스** 033-335-5289
6코스 중점인 보현사 버스중점까지 강릉 시내버스(502번)를 이용할 수 있다. 평일기준 9회 운행한다.
- 강릉(안목)출발 → 보현사 버스중점: 첫차 6시, 막차 20시45분
- 보현사 버스중점 → 강릉: 첫차 6시45분, 막차 21시35분
평창에선 황계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강릉방면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황계택시 033-335-5596
대관령면 개인택시 033-335-5960
강릉 친절콜 1588-8234
강릉 K-콜 033-648-0000

강릉콜 033-653-2288
강릉 명주콜 033-662-2253
강릉 개인택시 033-651-1155

문의 **평창군 관광안내센터** 033-330-2771

강릉시 종합관광안내소 033-640-4414, 4531

강원도 관광협회 033-244-6899



7코스

보현사 버스종점~명주군왕릉



7코스

길이 | 11.7km 난이도 | 중 시간 | 5시간

보현사 버스종점 - 1.5km → 보현사 입구 - 2.9km → 어명정 - 1.1km → 술잔바위 - 6.2km → 명주군왕릉

금강소나무와 나란히 걸은
삼십리길
온몸에 소나무 향이 스며들다



7코스는 소나무 숲에서 시작해
소나무 숲에서 끝난다.





길양편으로 소나무와 참나무가 나란하다. '참솔나무 숲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금강소나무

우리나라에만 있는 소나무다. 나무껍질이 짙고 붉은색을 띤다. 전국 어디에서나 자라지만 강원도·경상북도 등 태백산맥 주변 내륙 산지에 주로 서식한다. 나무가 튼튼해 최고의 목재로 꼽힌다. 금강산에서 이름을 따왔다.

올림픽 아리바우길 강릉 구간은 기존의 강릉바우길과 길을 공유한다. 강릉바우길은 코스마다 작은 계목을 붙여 길의 주제를 드러내는데, 이를테면 강릉바우길 3코스에는 '어명을 받은 소나무길'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부제처럼 7코스는 온종일 소나무 숲에서 거니는 길이다. 소나무 숲에서 길이 시작해 소나무 숲에서 길이 끝난다.

보현사 입구에서 길은 산으로 들어간다. 임도 옆으로 붉은 흙길이 나온다. 숲에 들면 이내 소나무 세상이다. 온통 소나무다. 소나무도 보통 소나무가 아니다. 반듯하고 잘생긴 금강소나무다. 금강소나무는 백두대간에서 뻗어나온 산자락에 서식한다. 길은 7코스 초입에서 백두대간을 내려왔지만, 산은 여전히 백두대간의 식생을 품

고 있다. 이 산자락이 저 산자락이라는 뜻이다. 알고 보면 산도 길처럼 이어져 있다. 온몸에 솔향이 배는 기분이 들 때쯤 흥미로운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다. 길 왼편으로는 금강송이, 오른편으로는 굴참나무·갈참나무 등 참나무 종류가 마주 보고 서 있는 숲이 나타난다. 강릉에서는 소나무 아니면 '잡목'이라는데, 여기

의 참나무는 소나무와 격을 맞춘다. 자연 그대로의 숲은 아니다. 붉은 길의 사이에 두고 두 종류의 나무가 500m 이상 스스로 도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근래에 심은 것도 아니다. 소나무와 참나무 모두 하늘을 가릴 만큼 높고 크다. 소나무와 참나무가 사이좋게 나란한 길



올림픽 아리바우길 이정표

하나의 길 표식에 '올림픽 아리바우길'과 '바우길' 두 개의 길 이름이 적혀 있다. 강릉 구간을 걷다 보면 자주 마주치는 이정표다. 잘못 표기된 것은 아니다. 올림픽 아리바우길 강릉 구간은 기존의 강릉바우길과 길을 공유한다. 코스로 보면 6코스부터 9코스까지다. 올림픽 아리바우길 6코스는 강릉바우길 2코스, 올림픽 아리바우길 7코스는 강릉바우길 3코스, 올림픽 아리바우길 8코스는 강릉바우길 10코스, 올림픽 아리바우길 9코스는 강릉바우길 11코스에 해당한다. 따라서 길 두 개가 적힌 표식에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강릉에 들면 강릉바우길 이정표를 참고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다. 아직은 올림픽 아리바우길보다 강릉바우길 이정표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7코스에서 내다본 백두대간. 나란한 소나무 사이로 장대한 산줄기가 드러난다.

숲에서 빠져나오니 입도다. 입도는 의외로 널찍하다. 자동차가 다녀도 넉넉한 편이다. 평소에는 보현사 앞 입구에서 자동차를 막지만, 명절 기간에는 성묘객을 위해 길을 열어놓는다고 한다. 그래도 소나무는 여전하다. 다만 두어 발짝 길 뒤로 물러났을 따름이다. 10분쯤 걸었을까. 모퉁이를 돌아서자 길가에 선 정자가 보인다. 어명정(御命亭)이다. 어명정은 원래 노송이 있던 자리다. 2007년 11월 29일 광화문 복원을 위해 벌채한 소나무가 그 자리에서 있었다.

정자 북판에 그때 베어낸 금강소나무 세 그루의 그루터기가 있다. 지름이 90cm나 되는 대경목(大莖木)이다. 안내문에 '금강소나무 벌채를 위해 교지를 내리고 위령제를 지낸 뒤 대경목을 베고 묘목을 심었다'고 적혀 있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유홍준 교수가 문화재청장 재직 시절 당시 산림청장과 함께 “어명이오!”라고 외치고 도끼를 내렸다고 한다.

올림픽 아리바우길은 어명정에서 다시 산길로 접어든다. 어명정 뒤로 산



일제가 송진을 채취하기 위해 낸 상처

으로 올라가는 이정표가 서 있다. 숲에 들어서니 다시 하늘이 좁아진다. 머리 위 하늘이 있어야 하는 자리를 소나무가 덮고 있으니 '소나무 하늘'이다. 소나무 사이로 내려앉은 햇빛에서 온기가 느껴진다. 시선을 옆으로 돌리면 나란한 소나무 사이로 백두대간이 펼쳐져 있다.

멧돼지들이 진흙 목욕을 한다는 '멧돼지 쉼터'를 지나니 비탈을 따라 엄청난 규모의 금강소나무 군락지가 나타난다. 신비로운 기운마저 느껴지는 장관이다. 오솔길을 따라 줄을 걸어나 출입을 막았다. 안내판에 '송이거리'라고 적혀 있다. 이 소나무 아래가 송이버섯 밭이라는 뜻이다.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송이버섯은 원래 소나무 아래에 사는 버섯을 가리킨다. 다른 나무 아래에서도 종종 보이지만, 금강소나무 아래의 송이버섯을 으뜸으로 친다. 광화문 복원에 들어간 소나무다. 이 소나무에서 나는 송이버섯이라면 효험도 분명 남다를 터이다.



어명정. 소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들었다.



어명정 아래에 그루터기가 남아 있다.



‘소나무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 아름다운 소나무가 하늘을 가린 풍경. 7코스에서는 흔하다.

송이거리를 벗어나자마자 마루금에 놓인 평퍼짐한 바위가 나타난다. 술잔바위다. 바위 위에 술잔처럼 생긴 동그란 구멍이 세 개 파여 있다. 술잔바위에서 선자령 북쪽 백두대간이 흰히 내다보인다. 시선 왼쪽의 봉우리가 곤신봉(1131m)이고, 풍력발전기 늘어선 능선의 봉우리가 매봉(1173m)이다. 매봉 너머에는 대관령 삼양목장이 있고, 매봉을 따라 북으로 나아가면 오대산(1565m)으로 들어간다.

술잔바위에서 완만한 내리막이 이어진다. 아직도 소나무 숲이다. 이제 몸에서도 솔향이 풍기는 것 같다. 소나무 몇 그루가 눈에 밟힌다. 몸통에



넒따란 바위위에 동그란 구멍 세 개가 파여 있어 바위 이름이 ‘술잔바위’다.



술잔바위에서 내다본 백두대간 전망. 선자령 북쪽 곤신봉과 매봉을 잇는 마루금이다.

일제가 송진을 구하려고 파낸 흔적이 흉터처럼 새겨져 있다. 전국의 이름난 소나무 군락지에는 이렇게 흉진 소나무들이 꼭 있다.

소나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다. 우리는 소나무와 더불어 살았다. 태어나면 금줄에 술가지를 꽂았고, 소나무로 지은 집에 살았고, 술방울로 아이이를 지켰고, 송진을 견어내 불을 살렸고, 술방울을 따 술을 담갔고, 죽어서는 소나무로 짠 관에 들어가 누웠다. 우리가 가장 친숙한 나무를 늘 곁에 두고 있어서 내내 편안했다.

7코스는 국내 최대 소나무 군락지라는 경북 울진의 금강소나무숲길 버금가는 명품 송림길이라 할 만하다. 명주군왕릉에서 7코스가 끝난다. 여기도 최소나무다. ‘솔향강릉’이란 말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었다.

7코스 여행정보

먹거리

식당명 (음식)	주소 (연락처)
강릉휴게소 (푸드코트)	강릉 성산면 보광리103 (033-648-8850)
대굴령민들레동산 (민들레술밥)	강릉 성산면 성연로 17 (033-644-8862)
계곡식당 (백숙, 오리주물럭)	강릉 성산면 진다리길 204 (033-648-9754)
보광농장가든 (물막국수, 백숙)	강릉 성산면 성연로 133 (033-653-4516)

숙소

상호	주소 (연락처)
대굴령 자동차마을	강릉 성산면 보현길 56-13 (010-6661-9649)
바우골	강릉 성산면 삼왕길 170 (033-647-2221)

교통



강릉 시내버스 033-640-5252
7코스 명주군왕릉에서 강릉(안목)까지 시내버스(502번)를 이용할 수 있다.
- 강릉(안목) → 명주군왕릉(삼왕릉):
첫차 5시55분, 막차 20시45분
- 명주군왕릉(삼왕릉) → 강릉:
첫차 6시45분, 막차 22시35분
주말에는 503-번 버스를 회 운행한다.



강릉 친철골
1588-8234
강릉 K-콜
033-648-0000
강릉콜
033-653-2288
강릉 명주콜
033-662-2253
강릉 개인택시
033-651-1155

문의

강릉시 종합관광안내소

033-640-4414, 4531

강원도 관광협회 033-244-6899



8코스

명주군왕릉~송양초등학교

8코스

길이 | 11km 난이도 | 중·하 시간 | 5시간

명주군왕릉 - 4.6km → 솔바우 전망대 - 3.6km → 위촌리 버스종점 - 2.8km → 송양초등학교

길은 다시 마을로 들어왔다
물 건너고 산 오르고 고개 넘어
길은 끝내 사람의 곁으로 돌아왔다



명주군왕릉 동자석



명주군왕릉



신라시대 강릉을 왕처럼 통치한 주인공이 여기에 누워 있다.

8코스는 명주군왕릉에서 시작한다. 명주군왕릉 어귀 주차장까지 내려왔던 7코스를 잠깐 되짚은 다음 왕릉을 예운 소나무 숲 뒤로 돌아나가면서 길이 이어진다. 명주군왕릉. 왕릉이면 왕릉이지, 명주군왕릉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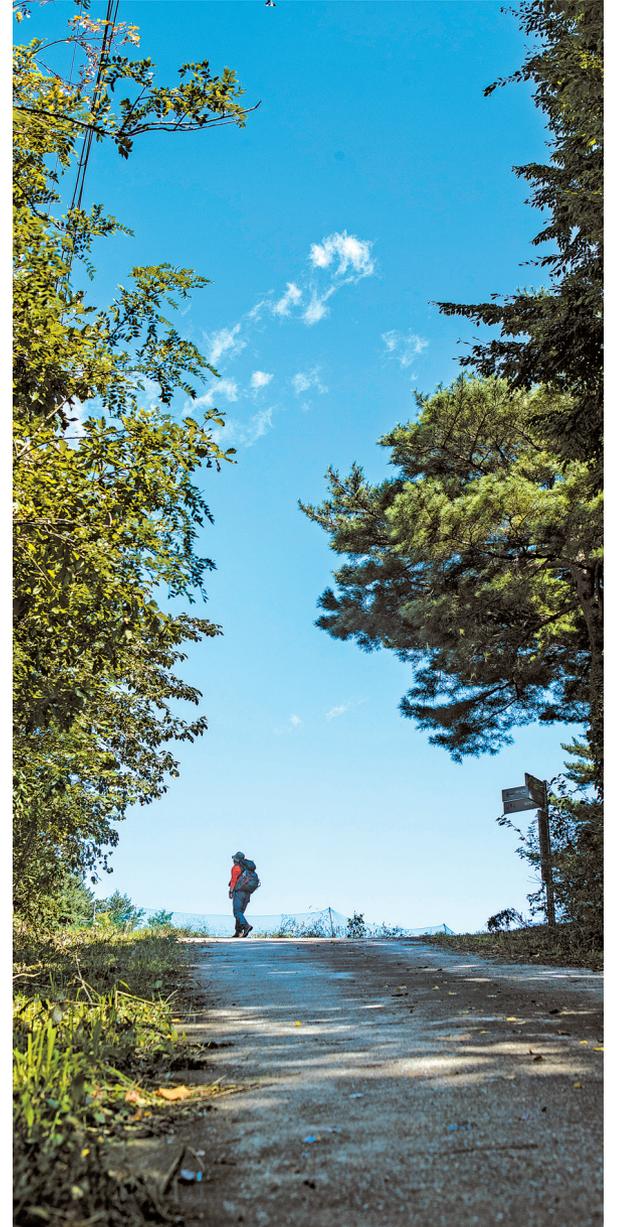
명주(溟州)는 신라시대 강릉을 부르던 지명이다. 그런데 여느 지명과는 차원이 다르다. 신라 원성왕(재위 785~798)이 재위하자 또 다른 왕위 계승자 후보였던 왕족 김주원이 명주로 몰려났다. 원성왕은 반란을 염려해 김주원을 명주의 왕으로 봉했다. 실질적인 자치를 인정한 것이다. 이후 강릉은

중앙정부와 한 발짝 떨어져 독자적인 공동체를 형성했고, 김주원은 강릉 김씨의 시조가 되었다. 명주군왕릉은 독립국가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던 강릉의 역사를 증명하는 유산이라 할 수 있다.

강릉은 원래 고구려 땅이었다(고구려 때 강릉의 이름이 '하슬라'다). 이후에는 신라에 속했지만 신라 왕조도 따로 왕을 둘 만큼 거리를 뒀다. 강릉은 서울하고도 멀었다. 오랜 세월 대관령은 넘지 못할 벽이었다. 하여 강릉은 1000년 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고유한 문화를 지킬 수 있었다. 단오제의 풍속이 강릉

지역에서만 계승되었던 까닭이다.

고립된 땅이었으나 강릉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고장이었다. 대관령을 벽처럼 두르고, 백두대간에서 내려온 남대천이 흐르고, 마을 북편에 거울처럼 맑은 호수가 있고, 호수 너머에 동해 바다가 넘실대는 마을이 강릉이다. '동대문 밖이 강릉'이라는 옛말도 있거니와 '평생 대관령 한 번 넘지 않고 죽는 것만큼 복도 없다'는 강릉 사람의 허세 어린 말에서도 강릉 특유의 정서를 짐작할 수 있다. 8코스에서 강릉의 역사를 살피는 이유가 있다. 8코스의 주제가 강릉 사람이다.



8코스는 대관령 아랫마을을 구석구석 찾아가는 길이다. 엄청난 장관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편안하고 푸근해서 걷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이다.



명주군왕릉 사자상. 옛 강릉의 주인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솔바우전망대에서 내려다본 강릉 시내. 고속도로가 화면 하단을 가로지른다.



이름하여 '야자매트' 구간. 야자나무 껍질로 만든 매트를 길바닥에 깔았다.

대굴령이라는 지명을 아시는지. 물론 대관령에서 나왔다. 대굴데굴 굴러서 대굴령이라는 강릉 사람의 우스개다. 하여 지도에는 없다. 그러나 마을은 있다. 대굴령마을은 대관령옛길 아랫마을인 어홀리와 올림픽 아리바우길 7, 8코스가 지나는 보광 1, 2리 세 마을이 구성한 영농조합의 이름이다. 세 마을은 대굴령마을이라는 이름을 나눠 쓰며 농촌·산촌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꾸린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모두 대관령 아랫마을이다. 대관령 자락에서 내려온 산세도 꾸준하다.

8코스는 크게 숲길과 마을길로 구분되는데, 숲길은 내내 익숙했던

송림길이다. 다른 건 마을이다. 올림픽 아리바우길은 3코스에서 노추산을 오른 뒤로 좀처럼 마을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관령을 품은 백두대간 자락이 그만큼 크고 높았다. 고개를 내려와서야 비로소 길은 우리네 일상으로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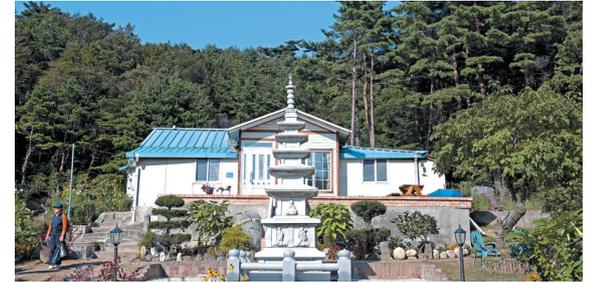
올림픽 아리바우길 8코스를 '심스테파노길'이라고도 부른다. 병인박해(1866) 때 순교한 심스테파노가 살았다는 '강릉 골아위'가 '골아우(지금의 경암동)'라는 주장에서 유래했다. 심스테파노는 천주교 순교자 877명 중에서 유일한 강릉 출신이다. 8코스 중간엔 마을이 경암동이다. 8코스에는 신당도 많다. 송천사와 법륜사는 사찰이 아니라

신당이다. 신이 깃든 고개의 아랫마을이니 어쩌면 당연한 풍경이다.

마을로 내려온 길은 걷기에 편했다. 숲은 깊었지만 산은 험하지 않았다. 솔바위전망대 오르는 길은 야자매트가 깔렸고, 내려가는 길은 계단이 놓였다. 전망대에도 데크로드가 설치됐다. 올림픽 아리바우길을 조성하면서 새로 들인 시설이다. 솔바위전망대에서 강릉 시내가 훤히 보인다. 화면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눈에 밟힌다. 까마득한 높이의 교각이 고속도로를 떠받치고 있다. 자동차의 길이 허공에 떠 있다면, 사람의 길은 땅바닥에 붙어 있다. 8코스가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아래를 통과한다.



올림픽아리바우길 강릉 구간은 강릉바우길과 길을 공유한다.



솔바우전망대 오르는 길에 있는 송천사. 사찰이 아니라 신당이다.



솔바우전망대 가는 길. 울창한 소나무 숲이 이어진다.



솔바우전망대. 바위 위에 데크로드와 목재 전망대를 설치했다.

우추리



위촌리방앗간의 벽화. 설날 온 주인이 촌장께 세배를 드리는 장면을 그렸다.

8코스가 막바지에 이를 즈음 '우추리'라는 마을 간판이 나타난다. 강릉 사람이 위촌리를 부르는 이름이다. 도배(都拜)마을이라고도 한다. 절하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위촌리에서는 온 주인이 모여 촌장에게 세배를 올린다. 울곡 이이(1536~84)의 마을 대동계가 전승되는 유일한 고장이다. 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 울곡은 대동계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현재 위촌리 촌장은 1926년생 박철동 옹이다.

“설 이튿날 촌장님께 세배하러 갑니다. 마을에서 촌장님을 가마로

모셔오지요. 합동으로 세배를 올리고 마을 사람끼리도 세배를 합니다. 지금은 30여 개 마을에서 세배를 올리러 찾아옵니다. 원래는 설날 세배를 올렸는데 일제가 막아서 이튿날로 옮긴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촌리가 고향인 소설가 이순원은 “위촌리에서는 가정마다 대동계 향약의 4대 강목이 걸려 있다”고 덧붙였다.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 학창 시절 뜻도 모르고 외웠던 문구가 우추리에는 집집마다 걸려

있다. 새삼 뜻을 새겨 보니 하나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가르치는 경구다. 길은 우리가 잇고 살았던 무언가를 종종 일깨운다. 위촌리를 벗어난 8코스는 송양초등학교에서 9코스와 만난다.



8코스 종점 송양초등학교. 외국어 특성화 학교로 지정돼 있다.

도배마을 이정표. 삿갓 쓴 어르신 모형이 이정표에 붙어 있다.



8코스 여행정보

먹거리

식당명 (음식)	주소 (연락처)
강릉휴게소 인천방향 한식당 (곤드레돌술밥·갈국수)	강릉 성산면 보광리 273 (033-647-9970)
대추나무영양탕 (한식)	강릉 성산면 위촌길 307 (033-644-2785)
우추리도배마을한우 (육류·고기요리)	강릉 성산면 위촌길 274-5 (033-655-1114)
위촌리전통한우 (육류·고기요리)	강릉 성산면 소목길 203-10 (033-644-6658)
이주환전통한우 (육류·고기요리)	강릉 성산면 사임당로 107번길 89 (033-644-6168)
한우대무리 (육류·고기요리)	강릉 성산면 위촌길 123 (033-644-7750)
솔향아죽 (보양아죽·도리뱅뱅·다슬기전)	강릉 성산면 소목길 196 (033-646-1388)
위촌리자물식당 (한식)	강릉 성산면 소목길 177 (033-645-7111)



숙소

숙소명	주소 (연락처)
강릉힐링리조트	강릉 성산면 보현길 125 (033-648-4001)
사랑가득하펜션	강릉 성산면 보현길 137 (033-647-2503)

교통

	강릉 시내버스 033-640-5252 8코스 종점인 위촌리부터 강릉시내까지 시내버스(512번, 512-1번, 512-2번)를 이용할 수 있다. - 512번: 첫차는 8시, 막차는 21시30분이며 하루 4회 운행한다. - 512-1번: 첫차는 8시40분, 막차는 17시45분이며 하루 2회 운행한다. - 512-2번: 첫차는 6시30분, 막차는 19시50분이며 하루 4회 운행한다.
	강릉 친절콜 1588-8234 강릉 K-콜 033-648-0000 강릉콜 033-653-2288
	강릉 명주콜 033-662-2253 강릉 개인택시 033-651-1155

문의 **강릉시 종합관광안내소 033-640-4414, 4531**
강원도관광협회 033-244-6899



9코스

송양초등학교~강문 해변

9코스

길이 | 17.7km 난이도 | 중 시간 | 7시간

송양초등학교 - 3.4km -> 죽현저수지 - 5.9km -> 오죽헌 - 3.3km -> 시루봉 - 1.4km -> 경포대 - 3.7km -> 강문해변

길이 끝나는 자리 해가 떠올랐다
심심산골 장터에서 시작한 길이
강을 거슬러 오르고 큰 고개를 넘어
바다 앞에서 마무리된다



선교장 활래정



경포



경포 호수를 하늘에서 내려다봤다. 파란 호수 너머 파란 바다가 일렁인다.

드디어 마지막 구간이다. 심심산골
 장터에서 시작한 길이 강을 거슬러
 오르고 대관령을 넘어 동해 바다
 앞에서 마무리된다. 9코스는 강릉
 시내로 들어와 경포호수를 따라 걸
 은 뒤 강문해변에서 끝난다.

8코스 종점 송양초등학교에서 시
 작한 길은 야트막한산을 넘어 죽헌
 저수지로 이어진다. 강태공 몇몇이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었다. 배스가
 제법 올라온다고 했다. 죽헌저수지

를 돌아나온 길이 강릉 시내로 들어
 선다. 죽헌저수지 지나 오죽헌까지
 한 시간 정도 걸린다. 오죽헌을 지나
 면 경포 호수가 눈앞에 펼쳐진다.

강릉에는 보름달이 다섯 개 뜬다
 는 옛말이 있다. 하늘의 보름달이
 동해 바다에 비치고 경포 호수에
 비친다. 그리고 보름달은 술잔에도,
 그리고 당신의 눈에도 비친다. 낭만
 어린 옛말처럼 경포 호수 품은 강릉
 의 밤은 아름답다.



강릉 올림픽파크하키센터



9코스는 죽헌저수지 둘레를 절반쯤 걸은 뒤 강릉 시내로 이어진다.



경포 호수 옆에 조성한 가시연 습지. 하늘에서 촬영했다.



금빛 갈대 출렁이는 경포 호수의 가을 풍경



경포 호수의 겨울 풍경. 눈 덮인 백두대간이 멀찌감치 서 있다.

강릉 하면 경포(鏡浦)다. 관동지
 방의 허다한 명승 중에서 경포는 늘
 맨 앞자리에 있었다. 강원도기념물
 제2호인 경포는 경포대(강원도유형
 문화재 제6호)·해운정(보물 제183
 호)·취영정 등 호수 주변의 정자와
 누각도 이르는 개념이다. 호수를 두
 른 탐방로도 잘 나 있고, 가시연 습
 지도 정성껏 조성돼 있다. 겨울에는
 갈대밭에 철새가 내려앉는다. 9코
 스가 호수의 절반 정도를 에운다.

선교장



선교장 활래정을 하늘에서 내려다봤다. 선교장이 들어선 자리는 명당으로 유명하다.



국가민속문화재 제5호로 지정된 국내 최대 규모의 한옥.

입장료 어른 5000원
숙박료 행랑채 1박 7만원 등
주소 강원도 강릉시 운정길 63
연락처 033-648-5303

선교장은 관동 제일 사대부가의 가옥이다. 99칸으로 국내 전통 가옥 증가장크다. 세종의 둘째 형 효령대군의 11대 손 이내번(1708~81)이 약 300년 전에 터를 잡았고, 후손들이 대를 이어 선교장을 지키고 있다.

전국의 여느 고택 중에서도 선교장은 특별하다. 선교장을 지키는 가문이 대지주 집안이었으면서도 지역 농민들이 굶지 않도록 보살펴 존경을 받았기 때문이다. 금강산과

관동팔경 유랑에 나선 수많은 묵객도 공짜로 먹고 재웠다. 선교장 입구에 인공 연못을 파고 들인 정자 활래정(活來亭)이 유랑 나온 선비들에게 풍류의 안식처가 되었다. 흥선대원군(1820~98), 추사 김정희(1786~1856) 등이 극진한 대접을 받고 선교장에 글씨와 그림을 남겼다. 이강백 관장이 들려준 일화 가운데 하나만 소개한다. 손님이 이제 그만 가기를 바라면 밥

상에 차려놓은 반찬그릇의 자리를 바꿨다고 한다.

선교장은 원래 경포호수에 접해 있었다. 지금은 물이 많이 빠져 경포호수의 둘레가 4km밖에 안 되지만 선교장이 들어선 18세기에는 둘레가 12km나 됐다. 선교장(船橋莊)도 배다리마을이라는 옛 지명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고택 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죽헌이라는 이름은 오죽헌 둘레에서 자라는 검은 대나무에서 유래했다.

오죽헌

오죽헌(烏竹軒)은 신사임당(1504~51)의 친정이다. 정확히 말하면 사임당이 아들 율곡 이이(1536~84)를 낳은 방을 가리킨다. 사임당이 검은 용이 꿈으로 뛰어드는 꿈을 꾸고 율곡을 낳았다고 해서 '몽룡실(夢龍室)'이라고도 불린다. 보물 제165호다. 한국 주택건물 가운데 매우 오래된 것 중 하나라는 가치도 인정받았다. 오죽헌이라는 이름은 오죽헌 둘레에서 자라는 검은 대나무에서 유래했다. 오죽헌을 가운데 두고 매화나무·배롱나무·소나무·오죽이 호위하듯 서 있다.

어머니 사임당이 한국의 여성상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조선을 대표하는 여성 예술가였다면, 아들 율곡은 조선을 대표하는 대학자였다.



오죽헌 현판. 이방에서 율곡이 태어났다.

율곡은 조선 왕조를 통틀어 가장 많은 상소를 올린 주인공이기도 했다. 어머니 사임당은 현재 5만원권 지폐, 아들 율곡은 5000원권 지폐의 인물이다. 입장료 어른 3000원. 강릉시 율곡로 3139번길 24.

매월당 김시습 기념관

한국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를 쓴 매월당 김시습(1435~93)의 유물 전시관. 김시습은 평생 벼슬을 멀리하고 전국을 유랑한 기인이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문학은 두고두고 인용될 만큼 높은 평가를 받는다. 선교장 바로 옆에 있다.





길은 바다를 바라보는 해변에서 끝난다. 131.7km에 이르는 대장정이 마침내 마무리되는 것이다. 강문 솟대다리의 일출이 곱다.

경포호수를 에운 길은 동해 바다를 향하기 전에 부러 한 곳을 들렀다 나온다. 철새 도래지를 지나 교산교를 건너면 허난설헌 생가터에 이른다. 허난설헌(1563~89)은 한국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전』을 쓴 허균(1569~1618)의 누이로 더 알려져 있지만 허난설헌 역시 빼어난 시인이었다. 스물일곱 살에 요절한 불운의 시인이었을 따름이다. 그의 시편을 엮은 문집이 그가 죽은 뒤 명나라에 전해졌고 명나라 시인들의 극찬을 받았다.



허난설헌 생가터 앞의 허난설헌 동상



강문해변의 랜드마크 솟대다리



커피거리로 유명한 안목해변

허난설헌의 고향이 두부로 유명한 초당이다. 초당 두부는 바다에서 길어올린 간수를 써 빚는다. 초당마을에 오랜 전통의 두부 음식점이 여러 곳 있다. 초당(草堂)이라는 마을 이름이 허난설헌과 허균의 부친 허엽(1517~80)의 호에서 유래했다.

마침내 바다다.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다. 강문 솟대다리 앞 백사장 이 131.7km 올림픽 아리바우길의 종점이다. 강문해변은 해안을 따라 횡집이 늘어진 관광지다. 강문해변과 송정해변을 지나면 커피거리로 유명한 안목해변이다. 저마다 커피 맛을 자랑하는 카페 수십 집이 줄지어 서 있다. 해마다 가을이면 안목커피거리에서 커피 축제가 열린다.

동해 바다를 바라보고 선다.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해가 뜬다.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이 긴 여정을 보상해주는 듯하다. 고개를 돌리니 경포호수 너머로 벽처럼 늘어진 백두대간이 내다보인다. 저 산 너머 물소리 요란한 강에서 시작한 걸음이었다. 길을 걷는 것은 인연을 쌓는 일이다. 지구촌 최대 축제 올림픽도 결국은 인연을 맺는 일일 터이다.

9코스 여행정보

먹거리



은파횟집 모듬회, 버드나무브루어리 맥주, 부산식당 모듬수육, 초당순두부 백반

식당명 (음식)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서지초가뜰 (한식)	강릉 난곡길76번길 43-8 (난곡동 259번지)	(033-646-4430)
토담순두부 (순두부전골·순두부백반)	강릉 난설현로 193번길 1-19	(033-652-0336)
초당할머니순두부 (순두부백반)	강릉 초당순두부길 77	(033-652-2058)
강릉동화가든 (짬뽕순두부·순두부백반)	강릉 초당순두부길 77번길 15	(033-652-9885)
삼교리동치미막국수-본점 (막국수)	강릉 구정면 범일로 364	(033-647-8830)
육반장-본점 (육개장)	강릉 토성로 169	(033-655-6610)
버드나무 브루어리 (수제맥주)	강릉 경강로 1961	(033-920-9380)
명산참숯불구이 (돼지갈비·소고기)	강릉 성덕 포남로 168번 안길 24-1	(033-642-3533)
부산식당 (소머리국밥·닭국밥)	강릉 중앙시장길 22-1	(033-648-3422)
은파횟집 (회·횟집·물회)	강릉 창해로350번길 29	(033-652-9566)



강릉바우길 게스트하우스

(사)강릉바우길이 직접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 (사)강릉바우길 사무실이 같이 있어 강릉바우길과 올림픽 아리바우길은 물론이고 강릉 여행에 관한 정보를 두루 얻을 수 있다. 2인실·4인실·8인실 등이 있다. 침대 1개 2만5000원. 강릉시 임영로 180번길 25. 033-646-0222.

숙소

숙소명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오족한한옥마을	강릉 죽헌길 114	(033-655-1117)
경포술내음휴집펜션	강릉 시루봉길 31	(033-648-9608)
관광펜션 휴심	강릉 저동골길 21	(033-642-5075)

교통

	강릉 시외·고속버스터미널 033-643-6092	강릉 시내버스 033-640-5252
	9코스 강문해변까지 시내버스(230번, 230-1번)를 이용할 수 있다. 평일 18회 운행한다.	
	-강릉시내(터미널) → 강문해변 : 첫차는 6시30분, 막차는 20시20분.	
	-강문해변 → 강릉시내 : 첫차는 7시20분, 막차는 21시10분.	
	강릉 전철콜 1588-8234	강릉콜 033-653-2288
	강릉 K-콜 033-648-0000	강릉 명주콜 033-662-2253
		강릉 개인택시 033-651-1155



정선군 여량면 아우리지. 왼쪽에서 흘러나오는 송천과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골지천이 여기서 만나 조양강이 된다. 조양강은 흘러 동강이 되고, 동강은 서강과 만나 남한강이 되고, 남한강은 북한강과 만나 한강이 되어 서해와 몸을 섞는다.



올림픽 아리바우길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도종환
제작기획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
제작협력 (주)중앙일보
인쇄제본 중앙디자인웍스(주)



대한민국정부가 발행한
<올림픽 아리바우길>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i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